

ISSN 1223-9683

博物館紀要

28

2013

목 차

❖ 論 文

廣明의 韓國 石燈 鄭永鎬 5

三國과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鄭明鎬 13

高麗와 朝鮮時代의 石燈 崔仁善 53

❖ 附 錄

부록 1. 한국 석등 지정문화재 목록 88

부록 2. 북한 석등 목록 91

부록 3. 석등 관련 금석문 92

❖ 2013年度 彙報 95

廣明의 韓國 石燈

鄭 永 鎬*

1.

수제(首題)를 「광명등(廣明燈)」이라 한 것은 흔히 「광명대(光明臺), 광명등(光明燈)」의 용어(用語)로 석등(石燈)을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넓게, 넓은 곳에 밝은 불을 미치게 한다」는 뜻이다. 즉 「명(明)」은 밝음을 뜻하고 「광명(光明)」은 밝은 빛을 일컬음이니 「명(明)」으로 만도 「밝은 빛」을 나타낼 수 있어 이를 온 세상 넓은 곳에 펼 수 있다는 생각에서 「광명(廣明)」이라 칭한 것이다.

석등(石燈)이란 일반적으로 등불을 장치하기 위한 석조등기(石造燈器)를 말한다. 등(燈)은 불[火]을 조명하는 기구로서 우리 인간이 항상 갈망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류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는 등기구(燈器具)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문명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기구를 만든 것은 토기의 제작과 같은 시기인 신석기시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에는 등기의 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확실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실질적인 등기구의 발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명은 토기의 발생과 함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토기를 제작함으로써 토기등잔이 만들어지고 한편으로 나무로 만든 등피(燈皮)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석기(石器)로도 배 모양(舟形)으로 내면(內面)을 파서 우묵한 데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박아 불을 밝혔던 석조등기(石造燈器)도 제작 사용하였던 보물(寶物)이 파키스탄(Pakistan)의 스와트(Swat)지방에서 발견조사 된 바가 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등잔과 같은 등기구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역시 토기를 사용하던 신석기시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1) 파키스탄 치트랄지역 석조 등기
(기름에 심지를 넣어 사용, 청동기시대)



(사진 2) 파키스탄 치트랄지역 토기 등기
(기름에 심지를 넣어 사용, 청동기시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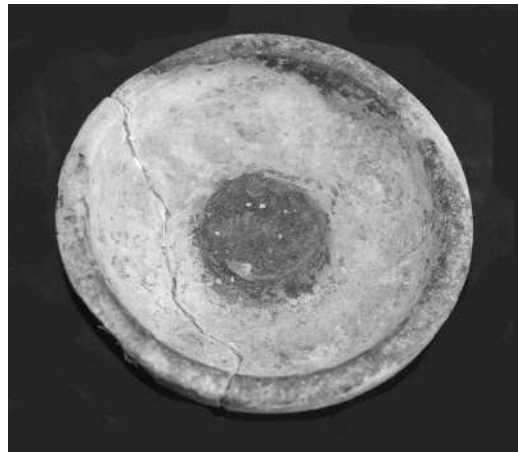
등기구는 토제(土製) · 석제(石製) 등기(燈器)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시대에 따라 동철제(銅鐵製)인 금속류(金屬類)와 석조물(石造物) 등으로 변천하였을 것인바, 불교경전에 의하면 동제(銅製), 철제(鐵製), 와제(瓦製), 목제(木製)의 등기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들의 연료로는 유류(油類)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헌상으로는 이렇듯 여러 종류의 등기가 보이고 있으나 ‘석등(石燈)’에 관한 명칭은 분명치 않다.

다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물과 몇 가지의 기록에서 ‘석등명(石燈名)’을 찾을 수 있으니 신라 진성여왕(眞聖女王) 5년(891)에 건조된 개선사지석등(開仙寺址石燈, 보물 제 111호,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의 명기(銘記)에서 「건립석등(建立石燈)」이라는 명문을 볼 수 있고, 고려 선종(宣宗) 10년(1093)에 건조된 나주서문석등(羅州西門石燈, 보물 제364호,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 세움)의 명기(銘記)에서 「등감일좌석조(燈龕一座石造)」라고 한 명문을 볼 수 있으며, 충청북도 속리산 법주사(法住寺) 사적(事蹟)에서는 「연등각(燃燈閣) 석사자(石獅子) 광명대(光明臺) 일좌(一座) 동철광명대일좌(銅鐵光明臺一座)」라 하여 연등각은 목조(木造), 석사자 광명대는 석조(石造), 동철 광명대는 금속제 등기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 3)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토제 등기



(사진 4) 부여 정림사지 출토 토제 등기

이렇듯 보물(實物)과 기록으로 통일신라시대 이래 석등이 건조되었음이 확실한데,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사찰과 능묘(陵墓), 그리고 그 유적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궁궐이나 저택 또는 그 유적지 등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다. 그리고 발견 조사된 유물과 유적의 조성연대를 살펴볼 때 능묘에 건조된 작품들 보다는 사찰의 석등

들이 양식적으로 앞서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곧 불교전래 이전의 농묘에서는 석등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진 5) 나주 서문 석등



(사진 6) 나주 서문 석등 간주석

3.

조명시설로서의 등기(燈器)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발견한 불[火]을 관리하여 어둠을 밝히려는 욕망을 가진 데서 창안되었고 점차 편리한 도구로 개발된 기구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의 주술적(呪術的)인 영역에서 벗어나 신(神)만이 만들 수 있다는 불을 스스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등(燈)은 인간 문명의 상징이 되었고 그 등불은 신비적인 관념에서 연유한 종교적 진리의 상징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불교는 기독교나 기타 종교에 비해 등(燈)의 개념에 교리적인 측면에서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 『조상경(造像經)』 등 여러 불경(佛經)에서 살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석등의 기원을 자연히 불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국(韓國)의 석등(石燈)’은 불교 문화재로서 더욱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불교에서 등기구(燈器)는 예배를 올리는 의식용에서 뺄 수 없는 기본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양기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도구로 일찍부터 제작되고 또한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사진 7) 부여 가탑리폐사지 출토 석등연화대석

그리하여 법당이나 승방(僧房)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등기구는 소형이고 항상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별문제가 아니나 옥외(屋外)인 경우는 대형인 동시에 견고해야 하므로 석조물로서의 등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석등(石燈)이 건조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천된 과정과도 같이

화재의 위험에서, 또한 등기구의 영구보존의 뜻에서 발생한 현상이라 하겠다.

석등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즉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으로는 남아 있는 석등의 예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연대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의 가탑리폐사지(佳塔里廢寺址)에서 백제의 석등연화대석(石燈蓮華臺石)이 발견 조사된 바 있고 전라북도 익산시(益山市)의 미륵사지(彌勒寺址)에서도 백제 석등의 연화대석과 옥개석, 화사석(火舍石) 등의 부재가 발견 또는 발굴 조사되었으므로 이미 삼국시대부터 석등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석등의 기본형은 하대석, 중대석(혹은 간석(竿石), 간주(竿柱)라고도 함), 상대석을 기대로 삼고 그 위에 등불을 직접 넣는 화사석, 옥개석을 얹었으며 정상부를 보주(寶珠) 등으로 장식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시대와 지방에 따라 변화를 보여 시대적 또는 지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진 8) 계성리사지 석등



(사진 9) 계성리 사지 석등 부분

석등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등불이 장치되는 화사석인데 지금까지 조사된 백제시대 석등의 화사석은 평면이 8각으로 4면에 화창구(火窓口)를 냈다. 이러한 점은 통

일신라시대의 전형이었던 8각을 기본으로 하는 형태가 이미 삼국시대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삼국시대 석등의 유례로는 백제시대의 절터 두 곳 이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으므로 석등의 시원(始源)이 삼국시대까지 올라간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한편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석등도 많고 또 양식도 다채로움을 이들 각처의 유례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석등의 양식적 분류의 주안점을 화사석에 두고 생각해 볼 때 8각, 6각, 4각의 세 가지 양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8각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진 양식인데 특히 신라시대에 많이 조성되었고 둘째, 6각은 고려 초기에 한때 유행되었던 양식으로 강원도 화천의 계성리사지석등(啓星里寺址石燈, 보물 제496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셋째, 4각은 고려시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유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상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모든 부재가 8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전형양식(典型樣式)이라 부른다. 이 밖에 전형양식 이외에 간주석(竿柱石)의 형태에 따라 고복형석등(鼓腹型石燈), 전형석등(典型石燈)으로도 세분할 수 있다.

三國과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鄭 明 鎬**

I. 序 論

II. 燈의 意義와 燃燈의 意味

III. 韓國 石燈의 起源과 形式

IV. 三國과 統一新羅時代의 石燈

V. 結 論

I. 序 論

한국고대(韓國古代)의 조형(造形) 미술품(美術品) 중 불교미술(佛敎美術)은 질에 있어 서나 양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불상(佛像)과 탑파(塔婆)를 들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등(石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종다양하다.

석등은 조명시설(照明施設)인 동시에 신앙심(信仰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제작된 조형물이다. 일반적으로 불교문화에 있어 상징적인 건축물인 탑 가운데에 석탑이 주류를

* 이 글은 鄭明鎬, 『韓國石燈樣式』(民族文化社, 1994)를 발췌하여 보완한 것이다.

** 덕난문화유산연구원장

있는 것과 같이 등류(燈類)에 있어서도 하나의 석조물(石造物)로서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속하는 귀품(貴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석등은 불상과 탑파에 부수되는 것으로 다분히 건축적인 성격을 띤다. 이 건축물은 간결한 조명시설물로서 사원과 궁궐(宮闕) 및 사가(私家)의 정원(庭園)을 장식하는 시설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석등의 쓰임새는 넓은 것으로 특히 일본의 경우 사원은 물론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요소로 발전시켜왔다.

석등의 기원에 대하여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삼국시대에 속하는 석등자료로 추정되는 초기의 작품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자료들로서 이는 불교 발상지인 인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석등양식 보다는 우리나라의 팔각 석등자료가 단연 앞선 양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뿐 아니라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은 다종다양하게 발달하여 근세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왔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석등자료는 대략 280 여 기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 거의 완전한 것은 약 60여기가 알려져 있으며 북한지역에도 5~6기가 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석등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또한 특이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석등은 같은 불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조차 의뢰로 석등자료가 진약하여 더욱 가치가 있다.

이제까지 이웃나라에서 밝혀진 자료를 기준으로 석등을 살펴보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이웃인 네팔에는 주목할 만한 2기가 있고 그 외 5기정도가 더 있으며, 중국에는 단지 2기가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스카[飛鳥]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아스카데라[飛鳥寺]터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나라[奈良]시대의 작품은 고후쿠지(興福寺)에서 2기분과 야마다지[山田寺] 터에서 각각 연화하대석(蓮華下臺石)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헤이안[平安]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다이마데라[當麻寺] 석등을 비롯하여 후대의 작품 수(數)점이 알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교문화권 중에서 다 같이 발달할 수 있었던 등구(燈具) 시설인 석등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보이고 있어 교리적(敎理的)인 배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거의 완전한 석등의 수는 60 여 기로 삼국시대 백제의 석등은



(사진 1) 일본 다이마데라[當麻寺] 석등

완전하지 못한 재료들만이 알려져 있으며, 한편 신라시대의 석등은 26기가 밝혀져 있고, 고려시대의 석등은 31기가 있으며, 조선시대는 불교사원에 속하는 4기의 석등 자료와 기타 능묘에 설치된 광명등(光明燈) 혹은 장명등(長明燈) 등이 있다.

즉, 280 여 기의 석등자료 중 석등의 완전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자료는 1/4정도인 60 여 기뿐이며 그 외의 석등으로서 완전하지 않으나 부재의 일부분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거의 파손되어 있는 유물이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풍부한 자료가 전국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별로 없는 실정

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 금세기초에 들어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비로소 부분적으로 주목되었을 다름이다. 이러한 선구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삼아 필자는 「한국석등목록(韓國石燈目錄)」¹⁾을 집성하여 연구 자료로서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자료로 한국 석등의 형식을 분류하고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석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1) 鄭明鎬, 「韓國石燈目錄」, 『考古美術』 第13輯, 考古美術同人會, 1968.

Ⅱ. 燈의 意義와 燃燈의 意味

1. 燈의 意義

등(燈)이란 불을 사용하여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한 욕망에서 인간이 창조·개발해 낸 조명구(照明具)를 말한다.

밝음은 만물(萬物)이 갈망하는 것으로 특히 인간은 밝음을 위하여 조명의 원천인 불을 직접 개발하여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함으로써 만물의 영장(靈長)이 되었으며 인류생활에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계속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문명을 형성하는데 노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구와 용기 및 시설물을 개발하여 개선하는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석등은 석재 조명시설로서 인간이 자연 속에서 받아들여 개발한 불을 관리하여 어둠을 밝히려는 욕망을 가진데서 창안(創案)·개발(開發)한 기구인 것이다. 인간이 자연의 주술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신(神)만이 만들 수 있다는 불을 스스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등(燈)은 인간문명의 상징이 되며 그 등화(燈火)는 신비적(神祕的)인 관념에서 연유한 종교적인 진리의 상징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등(燈)이란 조명하는 기구로서 항상 인간이 갈망하는 것으로 인류생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류는 등구(燈具)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문명을 찾게 되었다.

『사원(辭源)』에는 등(燈)을 ‘덕증절음등증운(德增切音登蒸韻) 역작운동(亦作韻鐙) 연화지기(燃火之器) 분고이취광명자야(焚膏以取光明者也)’라 하여 등(燈)은 불을 살리는 기구로서 기름을 태워 밝은 빛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성서(舊約聖書)」와 히랍신화에서도 또한 인류의 기원과 세계창조에 있어서 ‘명(明)」과 ‘불」의 사용에 관한 구절이 보이고 있으니 일월(日月)을 주목하였고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같은 신은 인간에게 불을 전하여 줌으로써 도리어 제우스(Zeus)의 미움을 얻었다 한다. 다음에 인도(印度)에서는 등(燈)을 범어(梵語)로 디파(dipa)라고 칭하며

형용사로는 디프타(dipta)라 하여 「빛나는」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또 불교경전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佛身光明如駐 金聚功德 智慧以自莊嚴得 円足眼善 能觀察衆生諸根 世間黑闇爲作燈明 衆生愚癡爲作 親善衆善’(「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

이라 한 바와 같이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등(燈)으로써, 즉 부처님의 진리를 비쳐 줌으로써 모든 무리들이 선(善)한 길을 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불설시등공덕경(佛說施燈功德經)』에서 볼 수 있듯이 삼명(三明)의 복전(福田)을 구하기 위하여 탑묘제불(塔廟諸佛) 앞에 등(燈)불을 밝히면 33천(天)에 다시 태어나며 다섯 가지 청정(淸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²⁾ 또한 등불 하나하나가 수미산(須彌山)과 같고 등유(燈油)는 넓은 바다와 같으므로 불가(佛家)에서 실행하는 모든 공야기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였다.³⁾ 또한 『조상경(造像經)』 「상삼조상품(上三造像品)」 15축(則)에서도 불타(佛陀)를 만들어 경영하는 사람이 부처님 앞에 새와 짐승을 던져 놓고나 부처님 앞에 시주한 돈을 단 한 닢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그는 역리를 받아 아버지옥에 떨어져 돌아올 수 없으므로 이들 가운데 등유(燈油)를 구하여 부처님께 등공양(燈供養)을 한 사람은 죄가 사해될 것이라 하였다. 『현우경(賢愚經)』에 의하면, 난다(Nanda)의 등(燈)에 대하여 재미나게 묘사하고

2) 『佛說施燈功德經』, 第二張.

“一切衆生 無上福田 舍利弗著 比丘 比丘尼 沙彌 沙彌尼 優婆塞 優婆夷 淸淨心爲求福 …… 翌善根 三明福田所 淸淨戒所 …… 無量眞實功德所 或於塔廟諸形像前而設供養 故奉施燈明乃至以少燈炷 或蘇油塗 然持以奉施其明唯照道之一階.”

『佛說施燈功德經』, 第三張.

“信佛法像如是少燈奉施 福田所得果報福德之.”

『佛說施燈功德經』, 第六張.

“善男子善女人於佛塔廟施燈明 已臨命終時 得三種明 何等爲三.”

『佛說施燈功德經』, 第八張.

“舍利弗於佛塔廟於燈明 已死便生於三十三天 彼天已於五種而得淸淨.”

3) 『華嚴經』 卷四十普賢行願品.

“言廣修供養者 …… 我以普賢行願力 故 起深信解 現前知見 悉以上妙諸供養具而爲供養 …… 然種種燈 酥燈燈油 諸香油燈 ——燈炷 如須彌山 ——燈油 如大海水 以如是等諸供養具 常爲供養 善男子 諸供養中 法供養最.”

있다. 즉 권세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의 화려한 등불보다는 험벗고 가난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난다(Nanda)의 등불만이 끝까지 어두움을 밝혀주는 불타의 진리의 불빛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불사(佛寺)나 불가(佛家)에서 예불(禮佛) 앞에 항상 등공양(燈供養)을 행하는데 이 공양에 대하여 燈의 교리적인 의의를 불교 의식문을 엮은 『석문의범(釋門儀範)』에서 찾아보면 「예경편(禮敬篇)」 제1, 대웅전향수해례(大雄殿香水海禮) 다선조(茶仙條)에 나무서건사칠당토이삼왕호(南無西乾四七唐土二三王狐)의 제대조사(諸大祖師)에게 전해진 법통을 이어 내려온 현상을 가리켜 전등(傳燈)하였다고 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분향례(五分香禮)」 가운데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광명운대(光明雲臺) 주편법계(周偏法界) 공양시방(供養十方) 무량불법승(無量佛法僧)’이라는 예불문(禮佛文)이 있다.

이상과 같이 등(燈)은 지혜 · 해탈 · 자비 · 선행 · 재생 등을 의미하고 있어서 불가(佛家)에서는 등화관념이 널리 퍼지고 그 사용이 처음부터 의식(儀式)에 따랐던 것을 알 수 있다.

2. 佛教儀禮와 燃燈

신라 제49대 경문왕(景文王) 6년(咸通 7, 866) 기사에 의하면, 정월 보름날에 황룡사(皇龍寺)에서 연등행사(燃燈行事)가 있어 경문왕께서 친히 이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이 뿐 아니라 3년 후에 경문왕과⁴⁾ 비(妃)인 영화부인(寧花夫人) 즉 문의황후(文懿皇后)와 대낭(大娘) 등의 원등(願燈)을 조성하여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학선리 소재 개선사(開仙寺)에 세운 사실을 석등(石燈) 화사석(火舍石)의 명문(銘文)에 상세히 밝히고 있다.⁵⁾

이곳에서 경문왕은 아마도 황룡사에 연등행사에 참관하여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며 이러한 인연으로 전(前) 국자감경사간(國子監卿沙干)이었던 김중용

4) 『三國史記』 卷 第11, 「新羅本紀」 第11, 景文王 6年條.

5) 朝鮮總督府, 『韓國金石總覽』 上, 아세아문화사, 1978, p.87.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pp.227-228.

(金中庸)이 보낸 좋은 기름과 양업조(糧業租) 삼백석(三百碩)으로 경문왕과 문의황후, 그리고 대당의 원등(願燈)을 영판(靈判)스님이 세운 사실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에도 원등, 연등공양이 있었으리라 본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感通) 제7 선율환생(善律還生) 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망해사(望海寺) 스님이었던 선율(善律)은 생존 시에 「육백반야경(六百般若經)」을 출판할 것을 원(願)을 세워 이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지옥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명사(冥司)를 만나 신문(訊問)을 받게 되었다. ‘너는 인간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묻기에 선율은 생존 시에는 「대품경(大品經)」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을 답하였던바 환생하여 보전(寶典)을 필성(畢成)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선율은 마침내 환생할 기회를 얻게 되어 돌아오는 도중에 애처로이 울면서 길을 막는 여인을 만나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이 여인은 20세가량 되는 여인으로 남염주(南閔州)의 신라 사람으로서 생존 시에 그의 부모께서는 금강사(金剛寺)에 속해 있는 수전(水田) 1무(畝)를 가로챌 죄로 인연이 되어 명부(冥府)로부터 중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마침 이곳에서 환생하시는 스님을 만나게 되어 그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환생하여 고향에 돌아갈 것 같으면 여인의 부모를 만나 가로챌 땅을 돌려줄 것을 권해 달라면서 한편 생존 시에 호마유(胡麻油)를 상 밑에 보관한 것이 있으니 이를 불등유(佛燈油)로 쓰고 또한 곱게 짠 베를 장구(裝具) 속에 곱게 간직한 것이 있으니 이를 팔아 사경(寫經) 비용으로 쓸 것을 당부하였다고 한다. 이 부탁을 받은 선율스님은 환생하여 이행(履行)하고 여인의 명복을 빌었던바 여인은 고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로 인해 중생들이 등공양(燈供養)을 치성으로 이행하게 되었다는 등공양신앙심(燈供養信仰心)이 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연등공양이 매일같이 이행되는 일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서역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권 제9에 의하면, 인다라세라(因陀羅勢羅)에 구가산(婁伽山) 서봉(西峰) 남암(南巖) 사이에는 대석실(大石室)이 있는데 토속의 말을 빌린다면 이곳에 스님들이 석실의 불상 앞에 매일 등거(燈炬)로서 항상 밝게 비치도록 연등공양을

실시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중국지역에 있어서 등공양에 관하여는 당대(唐代) 문종(文宗) 개성(開成) 4년(839) 승 연닌(圓仁)의 『대당구법순례행기(大唐求法巡禮行記)』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연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東西街中 人宅燃燈 興本國年盡晦夜不殊矣 寺裏燃燈供養佛 兼尊祭師影 俗人亦爾當寺 佛殿建塔樓 砲下庭中及行廊側皆燃油 基燈 數下違計知 街裏男女 不憚深夜 入寺看事 供養之前 隨分捨錢 巡看已訖 更到餘寺看禮捨錢 諸寺堂裏并諸院 皆競燃燈 有來赴者必捨錢去 無量義寺設匙塔竹燈 計此千燈其匙竹之燈 樹構作之 貌如塔也 結絡之稱 極是精妙 其高七八尺許 并從此夜 十七日夜 三夜爲期’

이라는 기록을 통해 연등(燃燈)은 입택(人宅)은 물론 사찰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여러 존제사영(尊祭師影) 앞에 연등공양을 하기 위해 가리남녀(街裏男女)들이 불탄심야(不憚深夜)에 입사간사(入寺看事)하였다는 사실과 특히 17일부터 3일간 무량의사(無量義寺)에서는 시탑죽등(匙塔竹燈)을 설치하였는데 그의 수는 1,000 등(燈)에 달하여 모양은 탑과 같다고 하였다.

또한 신라원(新羅院)안 적산원(赤山院)에서는 오직 불경장(佛經藏)에만 점등공양(點燈供養)하는데 황혼초야(黃昏初夜)에 시작하여 인시(寅時)에 조례불(朝禮佛)까지 실시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본국인 신라에 있어서도 당나라 신라원에서 연등공양의 식이 행하여졌으리라 믿어진다.

이와 같이 매일 탑이나 불전 및 불상 앞에 연등공양이 실시하게 된 연유는 「연등수결경(燃燈授決經)」에 보이는 정광여래수결(錠光如來授決) 과정을 비롯하여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서 밝히는 팔관제법(八關齋法)을 가지고 서원(誓願)을 세워 성불되는 과정에서 보장여래(寶藏如來)의 수결(授決)됨을 보여주는 사례와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제13 「지주품(地主品)」에 보이는 성명(聖明) 성주(城主)의 아들 등광태자(燈光太子)가 등광여래(燈光如來)로 성불(成佛)함에 따라 등광여래와 직접 연관을 맺게 된 지주왕(地主王)은 치성껏 묘탑(廟塔)에 향화공양(香花供養)과 등공양(燈供養)을 함으로써 복전(福田)을 얻게 될 진리(眞理)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육도집경(六度集經)』의 「연등수결경(燃燈授決經)」과 『增壹阿含經』의 마혈자문(馬血子問) 팔정품(八政品) 내용은 대동소이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늙은 비구(比丘)가 팔관제법(八關齋法) 중에 좌선(坐禪)과 송경(誦經)을 다하지 못하여 좌근중사(佐勤衆事)로서 충실히 수행(修行)함에 있어 부처님 앞에 등공양을 근조지법(勤助之法)으로 매우고자 등유(燈油)를 공급하는 여인과 부처님께 등공양을 직접 이행하여 성불을 밝혀준 진리인 것이다.

매일같이 치성껏 연등공양을 실천한 결과 연등불(燃燈佛)인 정광여래(錠光如來)로 성불수결(成佛授決)하는 큰 공덕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부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연등불사(燃燈佛事) 및 연등공양(燃燈供養)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여 나타난 연등공양을 위한 등구시설의 일종인 석등의 출현은 당연하다.

석등의 출현으로 전천후에 구애됨이 없이 노천인 야등(野燈)의 역할과 부처님의 진리의 표상인 광명(光明)을 상징하는 증표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燃燈供養을 옥내는 물론 옥외에서까지 연등수행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바로 우리나라 석등의 출현과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라 하겠다.

Ⅲ. 韓國 石燈의 起源과 形式

1. 韓國 石燈의 起源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는 여러 종류의 고대조형미술품 중 주목되는 것은 조명시설의 일종인 石燈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한반도의 풍부한 석등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되었고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기원되었는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학술조사에 의해 밝혀진 석등의 존재는 주로 능묘와 불사(佛寺) 및 그 유적 지내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저택과 택지 등에서 옥외에 시설된 석등구는 물론 등루(燈樓)의 유구가 전혀 발견된 바 없어 주목된다.

다양하게 발달된 유물과 유적의 조성연대를 상고하여 볼 때 능묘에 소재하고 있는 작품들보다는 비교적 종교적 예배처인 불사(佛寺)와 그 유적에서 발견되는 작품들이 양식상 선행되는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불교전래 이전의 능묘에서는 석등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원을 자연히 불교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석등의 발생이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 있어서는 겨우 3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중 2기는 네팔(Nepal)에서 찾아볼 수 있다.⁶⁾ 또 중국에 있어서는 겨우 2기만이 조사된 형편이다. 이와 같이 사소한 자료를 가지고 이상의 양국 가운데서 발상지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다만 한국 석등에 대한 기원문제만이라도 밝혀두고자 한다.

석등의 기원이 불교에 있다고 하면, 한국의 석등은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인데 최초로 받아들인 곳은 북쪽에 위치한 고구려로서 제17대 소수림왕 2년(372)에 불상과 경문이 들어오고 곧 가람이 세워진 것을 볼 때 필시 예배도구인 등에 관한 지식도 전해진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현존하는 유물·유적은 물론, 문헌조차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불교의 등구(燈具)는 예배의식용에서 뺄 수 없는 기본적인 의식구일 뿐만 아니라 불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양 중 가장 으뜸가는 법공양구인 삼대요품(三大要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양구가 실내용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옥외에 고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의식용 혹은 외등으로 겸하여 사용되었을 때 이들의 초기 형태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등구는 사용처에 따라 2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이동이 가능한 소형의 생활필수품으로서 실내외 장치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둘째는 건축의 한 부속으로서 옥외 일정한 곳에 고정시켜 주로 야외용으로 전용된 대형의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6) 大苦岩治, 「印度に於ける石燈の數例」, 『史蹟と美術』第七輯, 第69號, pp.1-16.



(사진 2) 중국 석우사(石牛寺) 4각 석등
(서안비림박물관)

불가에서는 등구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교리적인 의미에서 이용될 뿐 아니라 승려들의 양간 활동과 밤중에 사찰의 위치와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도구로서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은 원인에서 발전된 야외 등구의 초기양식에 대하여는 전혀 밝힐 수 가 없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때 탑상(塔像)의 초기 자재가 석조에 앞서 목조였던 것을 보아 등구 또한 목조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목조 가구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면서도 실재로 이와 같은 유구와 유적이 아직 발견된 바 없으므로 이도 구명할 길이 없으나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는 일본에는 문헌자료 2, 3예가 남아 있다. 그에 의하면 일찍이 목조의 등루가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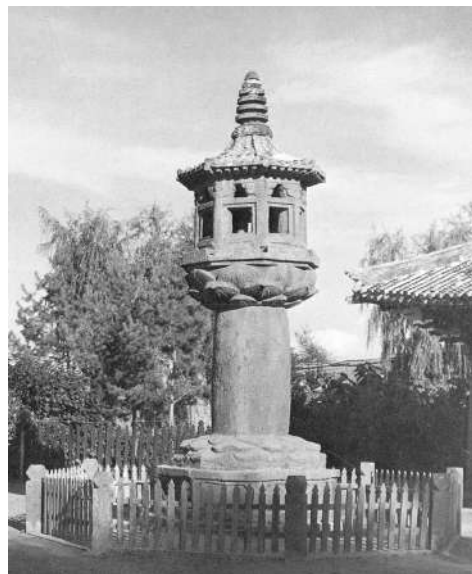
일본과 같이 석등에 앞서서 존재하였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등루와 유사한 명칭으로는 「법주사사적(法住寺事蹟)」에 ‘연등각(燃燈閣) 삼간(三間)’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등각의 위치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이곳에는 현재 4기의 석등만이 있는 만큼 목조의 등구시설로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등루 형태의 석등이 발해(渤海)의 고도 동경성(東京城) 내의 한 사지에 1기가 유존(遺存)하고 있는데 화사석(火舍石) 이상 부분에 목조건축양식의 장식을 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또 고려시대의 것으로 법천사지(法泉寺址) 지광국사탑비전지(智光國師塔碑殿址)에서 발견된 화사석편과 신록사(神勒寺)의 보제존자석종형부도(普濟尊者石鐘形浮屠) 앞 석등 등의 예로 보아 목조누각식(木造樓閣式)의 등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불교전래로부터 6세기까지 목조는 물론이요, 석재유구가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6세기 즉, 백제가 부여와 그의 남방인 익산시 금마(金馬)를 중심으로 한 불교 유적에서 비로소 시원적인 형태의 새로운 석등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石燈의 기원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시원양식으로 추정되는 석등이 발견된 부여의 일부재 이외에는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석탑이 있는 미륵사지로서 석등 또한 석탑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석재로서 등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목탑파에서 석탑파로 변천된 과정과 같이 화재의 위험에서 또한 작품의 영구보존의 의사에서 발생된 현상이라 하겠다.

석등은 시대적 구분에 따라, 또한 용도나 미관에 따라 그리고 종교적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변천되어 왔다. 그 가운데 불교적 성격에 의해 이룩된 석등은 가람배치에 따라 불전 앞이나 탑, 부도 앞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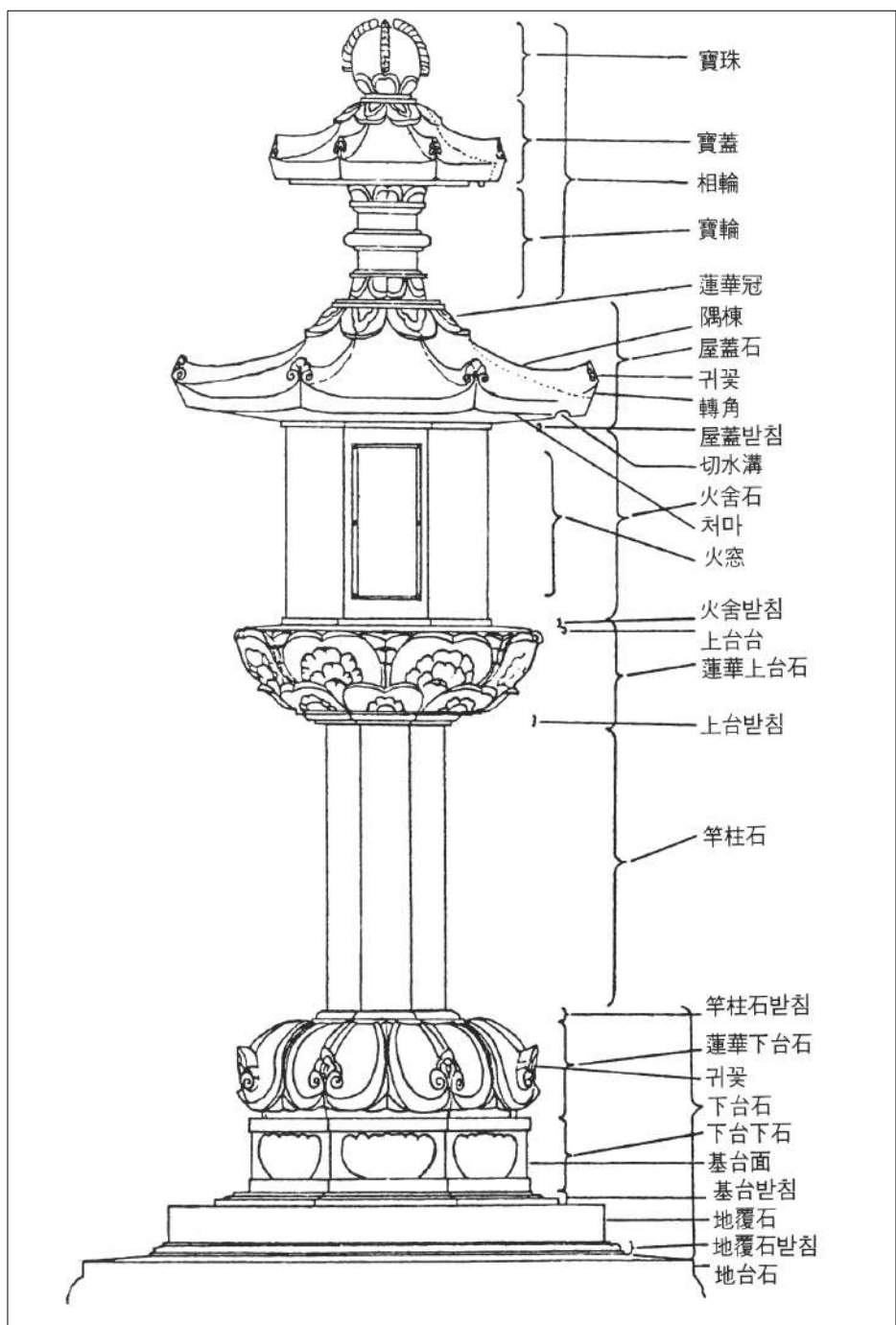


(사진 3) 발해 석등

되는 종교적인 의식구로서 불등(佛燈) 또는 헌등(獻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석등은 시대변천에 따라 점차 구조적인 표현양식도 필연적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일반적인 석등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등의 주요부분은 등화(燈火)를 일으키는 부분인 불집 곧, 화사부(火舍部)와 대좌부(臺座部)로 크게 나누어진다. 대좌부는 등부(燈趺)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상대좌나 부도의 대좌와 같이 거의 동형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온 것을 살펴보면, 주 부분인 화사석의 기본평면은 초기에 8각으로 4면에 화창(火窓)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에는 화사벽(火舍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형에 화창을 개설한 경우도 보이고 있다. 때로 화사석의 기본평면은 8각에서 변형되어 4각, 6각, 부등변8각 등으로 변화하여 시대적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간주석(竿柱石)에 있어서도 역시 8각이 기본형이나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고복형(鼓腹形)·쌍사자형(雙獅子形)·단사자



(도면 1) 石燈의 細部名稱圖

형(單獅子形) · 반룡형(蟠龍形) · 인물상형(人物像形) · 원형 · 타원형 · 부등변팔각형 · 육각형 · 사각형 등으로 변한다. 이같이 화사석 그리고 대좌 등의 주요부분의 변화양식은 이들 석등의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석등의 양식적 분류의 주안점은 화사석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8각, 6각, 4각의 3가지 양식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며 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8각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해진 양식이며 이는 특히 신라시대에 많이 제작되었다.

둘째는 6각으로 고려 초에 일시 유행되었던 양식으로 개성사지 석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4각형으로 고려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상과 같이 대별할 수 있으나 모든 부재가 8각형을 이루고 있으면 전형(典型) 양식이라 부른다. 전형양식 이외에 간주석의 형태에 따라 고복형 석등, 이형 석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形式과 種類

1) 石燈의 形式

한국 고대 석조 미술품 중에 주목된 작품은 사찰의 가람이나 능묘 앞에 설치된 부속물로 사용된 석등으로서 이들은 다종다양하게 발달해왔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는 280여기에 달하며 이들은 사찰과 사찰지에서 주로 발견된 것이며 능묘에서 발견된 자료를 첨가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화사석을 주부재로 삼아 이를 떠받고 있는 대좌부와 이를 덮어씌운 옥개부 등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다.(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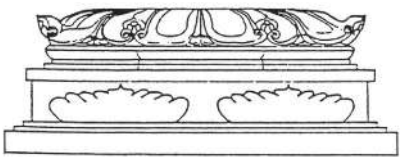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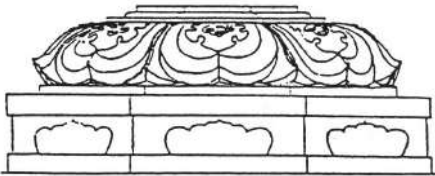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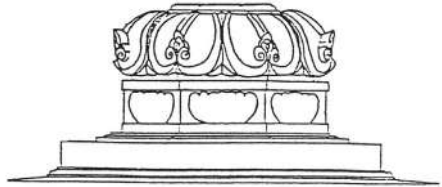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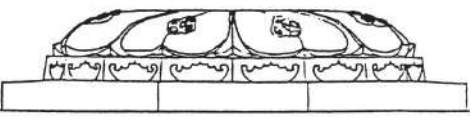
가. 臺座部

하대(下臺)는 지대(地臺), 하대하석(下臺下石), 복련연화하석(伏蓮華下石), 간주석(竿柱

石)받침 등으로 구분된다.

대좌부는 불상대좌나 부도의 대좌와도 같이 거의 동형(同型)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를 세분하여 보면 하대, 간석, 상대 등으로 다시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하대는 다시 지복석(地覆石)과 지대석(地臺石), 연화하대석, 간석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미륵사지 동편 금당지 앞 석등하대석이 이 종류에 속하며 또는 지복석과 지대석, 기대석, 연화하대석, 간석받침으로 대표적인 예는 부석사(浮石寺) 무량수전(無量壽殿) 앞 석등하대석으로 구성된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이상의 두 종류로 구분된 하대 중에 다시 기대부의 형식에 따라 3종류로 세분되고 있다. 즉, ① 방형 기대(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하대석), ② 8각 기대(법주사 대웅보전 앞 석등하대), ③ 16각 기대(백장암 석등하대) 등으로 나뉜다. 8각 기대 종류는 다시 기본형과 변형된 양식으로 이는 연화 하대부의 직경보다 축소된 양식(보림사 석등 하대부)이 등장되고 있으며, 또한 연화8엽계 등으로 다시 세분된다. 이상과 같이 석등의 하대석은 여러 종류로 발달되고 변화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형기대(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8각 기대-기본형(법주사 대웅보전 앞 석등)
	
8각 기대-변형(보림사 석등)	16각 기대(백장암 석등)

(도면 2) 기대부 형식에 따른 종류

나. 竿柱石

간주석은 불상대좌나 부도의 중대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하대와 상대 사이에 삽입된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8각 간주가 대표적인 것으로 불국사(佛國寺) 대웅전 앞 석등의 간주석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고북형과 부등변 8각, 6각, 원주, 4각, 쌍사자, 단사자, 반룡, 인물상 등 여러 종류의 간주부가 출현되기도 하였다.

다. 上臺

상대는 상대받침, 양련화대, 화사받침 등으로 구분된다.

상대는 대체로 하대와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평면8각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평면6각, 평면4각 등으로 세분된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점은 연판장식 표현에 대한 상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하대부의 연화하대의 복련과 상대부의 연화 상대의 양련문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하대의 연판무늬가 일치되는 경우는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을 들 수 있다. 하대는 복련 연화의 복련 화대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에는 단판 양련화대로 구성된 예로는 원원사지(遠願寺址) 석등을 비롯하여 보림사 석등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한편 상하대연화대에 장식된 문양이 동일한 단판연화로 이루어진 예로는 법주사 대웅보전 앞 석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상대, 하대에 장식된 연판문양에 따라 3종류로 세분된다.

라. 火舍部

화사부는 석등에 있어서 가장 주된 부분으로서 보편적으로 ① 평면 8면체에 전후좌우에 화창이 개설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미륵사지 석등 화사를 비롯하여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화사를 들 수 있다. ② 평면 8각의 화사석의 4면에 화창이 개설된 외에 나머지 면에는 조상(彫像)인 사천왕상(四天王像)을 비롯하여 보살상(菩薩像)이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부석사 석등과 법주사 대웅보전 앞 석등이 있으며, ③ 역시 화사석 전면에 화창이 개설된 것으로 개천사지 석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밖에 ④ 부등변 8각, 6각, 4각 혹은 4주형(四柱形) 등의 화사부를 들 수 있다.

마. 屋蓋部

일반적으로 석등은 노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옥개의 필요성이 요망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석등의 옥개석 모양새는 대체로 부도의 옥개석 모양과 유사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화사석의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평면 8각의 기본형을 형성하고 있었던 옥개석은 부등변8각, 6각, 4각형으로 변화된 옥개종류가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옥개의 종류는 4종류로 구분된다.

옥개부의 기본적인 시설은 민면에 옥개받침과 절수구(切水溝)가 있으며 상면에는 보주받침이 있다. 한편, 상면 정상부에 8판 복련을 장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은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천사지 석등에서처럼 전각부에 귀꽃을 장식하는 경우도 있다. 옥개의 정상에는 상륜과 보주로 마감장식을 한다. 보주양식을 취한 대표적인 예는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을 들 수 있으며, 보륜형을 갖춘 것으로는 보림사 석등이 있다.

2) 基本形式

각부재로 구성된 석등의 전체적인 구성은 원당형 부도의 구조형태와 서로 유사하다. 석등은 시대를 달리함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 발전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초기작품으로 추정되는 석등의 주체부인 화사석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 기본형은 8각 평면의 입면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8면체 중에 전면과 후면 그리고 좌우 사면에 화창을 개설하고 나머지 면에는 화사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 평면8각 입면체를 형성한 화사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석등의 등부인 등좌와 이를 보호하는 옥개의 형태에 있어서도 초기양식은 팔각의 기본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사면에 화창을 구비하였던 화사석의 화사벽에 장식 및 조각상이 배치되던가, 전면에 화창이 개설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것의 평면계획은 마침내 평면8각으로부터 부등변 8각, 6각, 4각형으로 변화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히 화사석을 주축으로 형성된 등좌부와 옥개석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양상이 시작되었다. 즉, 화사석의 변화현상에 따라 대좌부에 있어서도 간주석이 심하게 변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석등의 형식

기본형식	간주석	화사석	주요 석등
I 8각석등	A 8각간주	a 민흘림8각화창4면	미륵사지석등
		a' 정8각화창4면	불국사석등
		b 정8각화사벽조각상	부석사석등
		a" 부등변8각화창4면	보림사석등
	B 고복간주	a'	화엄사각황전앞석등
		b	청량사석등
		c 정8각화창8면	개선사지석등
	C 쌍사자	a'	법주사석등
		a"	
		b	영암사지석등
8각원당형	D 인물상	a'	법주사회견보살
	E 운룡간주	b	옥구발산리석등
	A' 부등변8각	e 6면화창	부인사동금당지석등
	8각중대	8면화창	신륵사보제존자부도앞석등
II 6각석등	A	d 전후면화창인동문	자혜사석등
	B 원형고복석		
III 4각석등	F 4각간주	f 4면화창	심회묘앞 장명등
		g 전후화창	조위묘 장명등
		h 고복형4우주	미륵당리4각석등
	귀부 및 4우주인물상		여수 흥국사석등
	G 원형간주	h' 각형4우주	관촉사석등
	C 쌍사자	g 전후화창	회암사석등
	C' 단사자	g 전후화창	청룡사석등

현재까지 조사에 의해 밝혀진 간주석의 조치 형태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팔각형간주석이 계속되어온 계통을 기본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본형은 시대를 달리함에 따라 고북형, 쌍사자형, 단사자, 인물상, 원형, 타원형, 부등변8각형, 4각형 등으로 변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형 발전된 양식 중 그 시대성을 가장 잘 표현한 부재는 말할 것도 없이 화사석 부분인 까닭에 우선 석등의 양식적인 분류를 화사석의 형태에 따라 크게 3양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는 8각으로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전하는 양식으로 특히 신라시대에 많이 사용된 형태로서 이 계통을 전형양식이라 칭하고자 한다.

둘째는 6각으로서 고려 초에 일시 유행된 양식을 과도양식이라 하고

셋째는 4각으로 고려 전기로부터 근세까지 유행되고 있는 양식을 발전양식이라 하겠다. 위의 내용을 다시 세분하면 5종으로 나누어지는데, ① 8각 민흘림계, ② 정8각형계, ③ 부등변 8각형계, ④ 육각형계, ⑤ 4각형계 등으로 구분된다.(표 1)

3. 樣式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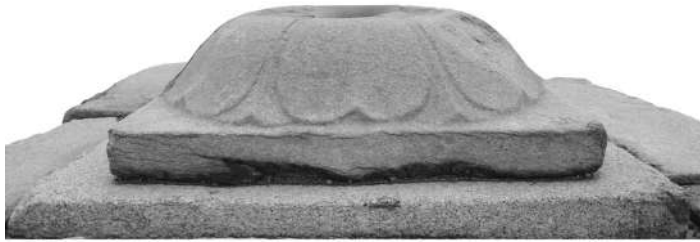
1) 典型樣式

한국에서 발견된 석등 중에 시원적 양식을 계승한 기본형은 화사석의 형태가 8각평면 입면체를 따르고 있으면서 대좌부와 옥개부가 모두 8각 평면의 기본 형태를 갖춘 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석등을 전형양식이라 한다.

전형양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고 이는 조형양식, 전형양식, 이형양식으로 세분된다.

가. 祖型樣式

조형양식은 전형적인 시원양식임을 뜻하는 것으로 초기에 출현된 대표적인 자료로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부재를 주축으로 삼아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방형의 지대석 위에 방형지복석과 방형평면상에 8엽단판 연화하대석으로 상면 중앙부에 원형의 간석 받침을 갖추었지만 이러한 양식과 간석은 소실된 8각 주석으로 추정된다.



(사진 4) 미륵사지 중금당지 앞 석등하대석

상대석은 파손된 것이나 평면 8각에 8엽 단판의 양련대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저면(底面)에는 8각의 간석 받침이 각출되어 있어 8각 받침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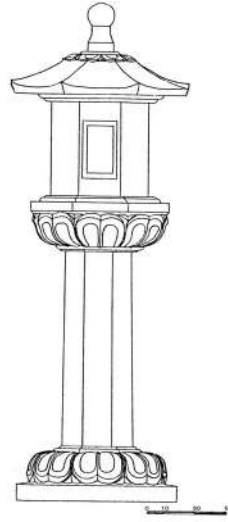
화사석은 역시 평면 8각의 입면체를 갖춘 상광하협평(上廣下狹形)으로 이와 같은 모양새는 네팔(Nepal) 카투만두(Kathmandu)에 보드나트(Boddhnath) 사원 석등 화사석에서 그 유례가 있어 주목된다.

옥개석은 역시 8각 평면으로 지붕의 추녀마루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비교적 넓은 처마를 갖추어 있어 목조 옥개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양식은 신라시대에 제작된 석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이란 점에서 조형(祖型)양식으로 보고자 한다. 조형양식의 석등은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 양식으로 하대석의 양식을 두 종류와 부여 가탑리 석등하대, 공주박물관 소장의 공주 정치리사지 석등하대석 등이 있다.

나. 典型樣式

전형양식은 한국 석등 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양식으로서, 화사석은 물론 간주석의 모양이 8각 평면 입면체를 유지한 양식으로 그 대표적인 작품은 불국사 대웅전앞 석등을 들 수 있다. 이 전형양식은 조형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모양의 갇춤새를 세련되게 정리한 양식으로 화사석을 비롯하여 간주석, 하대, 상대석, 옥개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각형의 기본 형태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사진 5) 불국사 대웅전앞 석등 (도면 3) 불국사 대웅전앞 석등 입면도

대좌부는 하대와 간주석, 상대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 ① 하대는 지복석, 지대석, 연화하대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복석과 연화하대석이 1매석에 조각되었는데, 방형 지복석 위에 원형평면상에 8엽 복판연화를 육조(肉彫)하고, 그 위에 2단의 간석 받침을 각출하였다.
- ② 간주석은 하광상협(下光上狹)의 8각주로 굽고 높으며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상대석은 8각 평면 2단의 8각 상대받침 위에 원형평면의 8엽 복판양련대를 육조하고, 8각 낮은 대를 설치한 상면에 2단의 화사받침을 각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는 등부(燈趺)인 등좌부(燈座部)는 높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사부는 8각 평면입체로 전후좌우에 화창이 개설되어 있는 방식이다. 미륵사지 석등 화사석 양식과 같지 않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상하 같은 폭의 화사석으로 정형화되었다.

이러한 정형양식의 석등은 불국사 석등계로서 미륵사지 석등계에서 발전하여 정제시킨 양식인 A형과 하대부의 하대연화 밑에 마련된 지복석이 자리한 부분사이에 새로 기대(基臺)가 마련된 B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B형은 다시 하대가 방형인 B-1형, 8각형인 B-2형, 그리고 16각형인 B-3형으로 구분된다.

〈표 2〉 전형양식 석등의 종류와 현황

종 류		석 등	비 고
전형양식 A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 불국사 극락전 석등, 원원사지 석등, 운문사 석등, 범어사 석등	
전형양식 B	1형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취서사 석등, 부인사 석등, 화엄사 구층암 석등, 성주사 석등	
	2형	법주사 대웅보전앞 석등, 홍륜사지 석등, 보림사 석등	
	3형	백장암 석등	

다. 異型樣式

이형양식은 전형양식에 속하는 종류로서 특히 대좌부의 간주석 부분에 새로운 이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석등 조형미와 발전상을 나타내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간석은 고북형, 쌍사자, 인물상 등으로 구분된다.

〈표 3〉 이형양식 석등의 종류와 현황

종 류		석 등	비 고
고북형계		청량사 석등, 개선사지 석등, 선림원지 석등, 화엄사 석등, 실상사 석등, 진구사지 석등	
雙獅子		법주사 쌍사자 석등, 영암사지 석등, 옥룡사지 석등,	
人物像		화엄사 사사자석탑 앞 석등, 금장암 석등	

라. 不等邊8角石燈

전형양식이 변화된 양식으로 8각 부재가 부등변 8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부인사 쌍화사 석등, 통도사 금강계단앞 석등 하대석, 통도사 관음전 앞 석등 등이 있다.

IV. 三國~統一新羅時代の 石燈

1. 祖型樣式 石燈

삼국시대는 한국 석등의 발생기로서 백제 영역에서 조형양식의 석등이 등장하였다. 불교가 백제로 전래된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확립과 안정기를 맞이하였던 침류왕(枕流王) 원년(A.D 392)으로 이때 불교를 국교(國敎)로 공인(公認)하였다. 불교 공인 이후 개로왕(蓋鹵王)의 전사로 부덕이 문주왕(文周王) 원년(A.D 475)에 웅진(公州)으로 천도하면서도 백제는 계속 불교사원을 건설하였다. 백제는 천도 후 정치적·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으며 마침내는 양무제(梁武帝)를 위한 대통사(大通寺)를 창건할 정도로 불교 문화가 성행하였다.⁷⁾ 그 후 다시 성왕 16년(A.D 538) 부여로 천도함에 따라 정치적인 안정과 제도상의 정돈이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자 중국의 남북조 제국(諸國)이나 또는 수나라와 활발한 교역을 통해 백제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할 터전을 닦게 되었다. 특히 양나라 공장(工匠)과 화사(畫師) 등을 초청하여 조형미술 면에서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백제미술문화의 주류인 불교미술의 각 부분이 성숙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여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람이 증설되었으며, 아울러 신라와 멀리 日本에 까지 문화의 전달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남쪽인 익산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사찰이 조영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석등 자료가 확인된 곳은 공주와 부여의 각각 1곳과 익산 미륵사지뿐이다.

1) 彌勒寺址 石燈

미륵사는 사적(史籍)에서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유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7) 『三國史記』 卷26, 聖王19年.

『三國遺事』 卷第3, 興法3, 大通寺.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재는 옥개석재 3기분과 화사석 3기분, 대석 3점 등으로 발굴 조사에 의하여 2개 차에 명확한 석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석등 가운데 1965년에 우연히 경작하던 중 노출된 석등 자료는⁸⁾ 방형평면의 지대석 상에 역시 방형 평면받침대를 구비하고 8엽 단판연화문대를 방형 평면으로 조각하였다. 연대(蓮臺) 위에는 1단의 원형 간주석 받침을 각출하고 상면 중앙에는 넓고 깊은 간석 족공(鑿孔)을 시공하여 놓았다. 이 연화대에 조각한 연판문양은 첨설엽형(尖舌葉形)의 판으로서 이 계통의 연판은 서산마애삼존불들의 연화대석 문양과 대동소이하며, 또한 공주 대통사지 수조의 간석에 부조한 연화문과 무령왕릉(武寧王陵)의 연화문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예산 사면불, 부여 규암리 출토 귀면문과 부여 송산리 고



(사진 6) 익산 미륵사지 중금당지 석등재

분 벽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형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와당에 있어 수막새 중에는 공주 말기, 부여기(扶餘期), 익산기(益山期)에서도 유사한 양식이 출현된다. 이 동원지(東院址)의 석등하대석의 구조는 물론 장식문양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상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되는 바가 되었다.

중원지(中院址)에서 발견된 석등연화대석은 2매의 지대석으로 조합한 위에 1매 석으로 이룩된 부재에 지복석으로 보이는 방형의 대석을 모각하고 그 위에 8각 평면의 연화하대석을 마련한 연화는 단판8엽의 복련으로 어깨부분은 비교적 넓고 첨설부는 내함하면서 반전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연화대 상면에는 동원지 석등과 같이 원형의 받침이 아닌 8각의 간주받침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주족공이 시공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점의 연화대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선 연화문의 형태가 판이하게 구

8) 黃壽永, 「益山彌勒寺址의 百濟石燈」, 『考古美術』 제3권 제12호, 考古美術同人會, 1962.

鄭明鎬, 「百濟時代의 石燈」, 『馬韓·百濟文化』 제1집,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

별되며 평면계획과 간주석 받침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들 양 석등부재는 동일시기에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시차를 달리하여 제작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연판문양에 따라 유행한 시기를 참조하면 중원 금당지 석등보다는 동원금당지 앞 석등재가 양식상 선행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한편 중원금당지에 속하는 목탑지 북편에서 노출된 석등 상대석으로 추정되는 부재는 복판으로서 백제문화권에서 발견된 석조물로서는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는데 연화문의 양식은 넓은 연판내에 복엽의 단세장한 자엽(子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양식을 따른 연판의 예는 부여 향교밭에서 발견된 소형의 와당에 장식한 문양과 동계(同系)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유물은 동원지역에서 발견된 석등 자료 보다는 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화사석은 신라시대 이후 조성된 석등 화사석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평면 8각에 상광하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화창은 전후좌우 4면에 개설되어 있다. 이 석등의 화사석과 외형상 유사한 예는 네팔의 카투만두 보드나트사원에 유존되어 오는 2기의 석등 화사석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 주목된다.⁹⁾

불교에서 진리를 상징하는 등명(燈明)에 관한 용어는 『등지인연경(燈指因緣經)』, 『화엄경(華嚴經)』,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불설미륵하생성경(佛說彌勒下生成經)』,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 등의 미륵 제(諸)경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미륵상생경에서서는 표현하는 촉(燭)의 개념을 무량한 화불(化佛)로 보고자 하였으며, 하생경에서는 용화회상(龍華會上)에서 보여는 실상(實相)의 미륵신불을 갖추고 있는 미륵사지에서 교리와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실상을 찾아볼 수 있으므로 백제인들의 종교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용화하(龍華下)의 연못에서 솟아나온 미륵삼존을 상징하며 묘사한 것이 바로 3기의 석등이며, 이들이 설교·설법한 그 장소가 바로 3전(殿)으로 보고 이를 가리켜 ‘내법상 미륵삼회 전탑랑무명삼소창(乃法像 彌勒三會 殿塔廊無名三所創)’을 실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실현한 건물배치와 부속건물은 무왕대(武王代) 1대에 걸쳐 이룩된 것으로 제작 연대를 달리 하면서 조성하였을 것이다.

9) 鄭明鎬, 「Nepal 石燈에 對한 考察」, 『東國史學』 제15·16집, 1981.

2) 扶餘 佳塔里石燈

부여 가탑리사지에서 1939년 최초로 밝혀진 석등 자료로서 학술적인 조사 없이 옮겨져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야외에 진열되어 있다. 원형의 평면에 8엽 단판 연화문을 배치하였는데 주연부가 고루 결실되어 있어 그 원상을 찾아내기 어렵다. 연판대 상면 중앙에는 1단의 낮은 8각 턱을 만들고 그 속에 운두가 높은 方孔이 파져 있으며 그 중앙에 다시 관통된 원공(圓孔)이 있다. 이 대석 밑은 石臼와 같이 파여 있는데 당초부터 시공했던 흔적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다만 특이할 만한 점은 연화대 정상에 설치한 낮은 8각의 턱으로 8각내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각의 첨부는 연화근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 8각형의 시공은 아마도 8각형의 간주석을 끼우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연판의 근부(根部)는 간석 받침 쪽으로 둥글게 굽혀져 있으며 근(根)의 폭은 좁고 판폭은 넓고 첨단의 판중간과 연결되는 낮은 판능선(瓣稜線) 위에 이르고 뾰족하다. 사이 엷은 전단(前端)이 넓게 퍼져 있다. 이러한 표현 수법은 엷고 부드럽게 조각하여 공장(工匠)의 능숙한 예술적 재질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연판문양이 부소산과 부여 신구리(新九里) 폐사지에서 발견되는 막새기와류와 유사한 수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미륵사에서 출토된 석등재 보다는 다소 후작(後作)으로 추정된다.



(사진 7) 부여 가탑리사지 출토 석등재



(사진 8) 공주 정치리사지 출토 석등재

3) 公州 鼎峙里 石燈

정치리 석등은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사지에서 반출되어 현재 국립공주박물관 야외에 놓여있다. 남아있는 상태가 온전치 못하지만 방형의 지대석 위에 연화문을 원형(圓形)으로 배치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연판은 7엽이 확인된다. 연판의 배치로 보아 아마도 8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단판의 연화문 사이에는 간엽이 있다. 상면의 중앙에는 방형의 구멍이 관통하고 있어 같은 모양의 간주석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탑리의 예에서처럼 연판의 근부에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지만 根의 주변이 마모되어 정확한 원형(原形)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의 석등 자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방형의 지대석 위에 8엽의 연화문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그 상면 중앙에 간주석을 끼우기 위한 방공(方孔)을 마련하고 있다. 간주석은 미륵사지와 가탑리사지의 예에서 볼 때 평면 8각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典型樣式 石燈

석등에서 전형양식이라 하면 삼국시대에 발생한 조형 양식에서 발전한 양식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전통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전형 양식은 경주를 중심으로 완성된 것인데 그 대표적인 석등을 4가지 양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양식은 방형지대석 위에 원형 평면의 복판 8엽 복련대로 이루어진 하대석이 놓이고 그 위에는 3단으로 된 간주석 받침대를 양각하고 중단은 4분원의 몰당을 이룩하여 한결 부드러운 인상을 준다. 받침 중앙에는 가늘고 긴 8각 간주석을 세웠는데 그 위에 날씬한 8각 평면의 양련 상대석을 안치하였고 상대석 위에 8각형의 화사석이 놓였으며 화창은 앞뒤 좌우에만 개창되었다. 옥개석 역시 8각으로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며 처마의 넓이는 미륵사지 석등의 옥개석보다는 다소 좁아지면서 균형 있는 비례를 취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상륜(相輪)은 단순한 포탄형(砲彈形)의 보주를 올려놓아

간략하고 소박한 자태를 보인다. 신라문화의 전성기의 경덕왕(景德王) 대부터 혜공왕(惠恭王) 연간에 조성된 불국사 석등 이후에 나타나는 석등들에서는 양식의 변화와 장식의 의장이 등장하게 된다. 즉, 불국사 석등을 시작으로 원원사지 석등, 운문사 석등, 부인사 석등, 성주사지 석등, 송림사 석등, 무량사 석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1양식에서 파생된 새로운 양상의 제2양식은 화사석에 설치된 화창을 개설한 나머지 면에 조각상을 장식한 것이다. 대표적인 석등은 법주사 팔상전 서편의 사천왕석등을 비롯하여 해인사 석등, 합천 백암리 석등, 옥구 발산리 석등 등이 있다. 화사석에 화창을 개창하지 않은 나머지 면에 보살상이나 사천왕상을 배치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종교적인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제3양식은 취서사 석등, 부석사 석등, 보림사 석등으로 이어지는 양식으로 하대부에 있는 기대의 변화를 특징으로 한다. 보림사 석등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서 방형의 지대 위에 8각의 기대와 8각 평면상에 8엽 복련을 조식한 복련 하대석을 구비하고 있다. 기대는 연화대보다 축소되어 있고 연판의 첨단부에는 귀꽃[隅花]이 보인다. 이와 같은 장식은 하대석뿐만 아니라 옥개와 보개의 전각단에도 귀꽃으로 아름답게 치장하였다.

제4양식은 기타 전형양식의 석등을 말하는데 간주석의 변화로써 고복형, 쌍사자, 인물상 등의 석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라는 대륙의 문화를 도입함에 있어 삼국 중 가장 뒤늦은 불리한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불교문화의 도입과 한강유역의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그 후 점차로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니 대체로 신라의 전통문화를 다음과 같이 3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표 4〉 신라 전통문화의 시기구분

구분	시기	특징	비고
제1기	법흥왕 14년(527)~무열왕대(660)	불교문화의 시창기	
제2기	문무왕(661)~혜공왕대(779)	신라문화의 전성기	
제3기	선덕왕(780)~경순왕대(935)	중앙 쇠퇴기, 지방으로의 불교미술의 보급	

이상의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신라 석등 양식의 변천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 第1期 典型樣式

현재까지 밝혀진 삼국시대에 창건된 사찰가운데 석등자료가 확인된 곳은 분황사(芬皇寺)가 유일하다. 분황사 석등은 모전석탑의 남쪽 앞 중앙 선상에 놓여있다. 부재가 완전하지 않아 그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재는 방형지대석과 하대석, 상대석 등이다.

분황사에 남아있는 부재와 백제지역에서 발견된 부재를 비교하면,

- ① 지대석의 형태는 방형으로 유사하지만 지대석 위에 하대하석받침과 연화대받침이 발생되었으며, 3단의 간주석 받침으로 증가되었다. 특히 간주석 받침이 1단의 원형받침으로부터 3단의 8각 받침으로 변형 발달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② 연화대의 평면은 가탐리 석등 재와 같이 원형(圓形)을 따르고 있다.
- ③ 연화문은 복판연화로 변화되었다.
- ④ 상련화 대석 상면은 미륵사지 석등에서 연화대 내에 8각대가 부각되어 있으나 분황사 석등재에서는 평면 원형으로 계획된 연화대 위에 연대보다 넓고 높은 8각의 화사대가 보인다.¹⁰⁾
- ⑤ 간주석은 상하대의 간석받침과 상대 받침이 8각인 것으로 미루어 8각으로 추정된다.
- ⑥ 가람배치에서 볼때 삼국시대 또는 통일이후의 사지에서 발견된 석등의 위치가 주로 당탑(堂塔) 사이의 중앙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상례이다.

2) 第2期 典型樣式

신라의 문화가 성숙한 시기는 제2기에 이르러서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불교의 지반도 확고하게 다져짐에 따라 불사건축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람배치를 위한 하나의 조형물로서의 비중을 얻게 된 석등의 건립도 증가하였다.

10) 이와 같은 양식이 대체로 8세기 이후에 출현되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황사의 석등을 그 창건연대인 삼국시대의 작품으로 추정하기에는 더욱 많은 자료의 수집이 요구된다.



(사진 9) 불국사 극락전 앞 석등



(사진 10) 감산사지 석등재



(사진 11) 석굴암 석등재

제1기에 발생한 백제지역의 조형양식을 계승한 분황사 석등의 하대석 양식은 제2기에 서도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불국사 대웅전앞 석등과 극락전 앞 석등 양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양식이 계승되는 한편 제2기에는 새로운 양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양식은 하대석의 조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복석 위에 연화하대석이 형성되어 있지만 새로 발생한 양식은 바로 지복석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대부가 형성 첨가되면서 이곳의 각 면에 안상(眼象)과 같은 새로운 장식이 첨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 발생하게 된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은 사천왕사지에서 발견된 석등 하대석으로 그 계통은 감산사지(甘山寺址) 석등 하대석, 이락당(二樂堂) 석등재, 십이지상 석등하대, 석굴암 석등 하대석 등으로 이 계통은 제3기로 이어진다.

3) 第3期 典型樣式

제2기에 발달된 2계통인 사천왕사지계통과 불국사 계통에 또다시 8각의 하대하석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하였다. 이 계통은 제3기 전형양식으로 등장된 이형 석탑계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이외에 새로운 형태는 화사석의 여벽면에 조각상이 발생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사천왕사계 석등으로는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축서사 석등, 부인사 석등, 해인사 석등, 성주사지 석등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가운데 성주사지 석등과 그 외 석등과는 입면상으로는 동일하나 평면계획으로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불국사계 석등으로는 원원사지 석등에서 청도 운문사 석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 시기, 즉 변형기에 들어서면서 전형양식의 석등은 화사석의 안상과 하대부에 변형양식이 발생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2)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사진 13) 축서사 석등



(사진 14) 성주사지 석등



(사진 15) 원원사지 석등



(사진 16) 운문사 석등

3. 異型樣式 石燈

석등의 변형기는 전형적 양식의 부재 일부 또는 전체가 변형되어 이형석등을 발생하게 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모든 조형에는 시대를 따른 변천이 있게 마련이다. 즉, 먼저 전형(典型)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의 문화가 변함에 따라 마침내는 변형하게 된다. 통일신라 초기부터 전반적인 안정기를 맞이하여 종교와 문화면은 극성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교예술의 창조도 왕성하였다.

그러나 불상에 있어서는 그 양식이 보수적인 규범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그대로 전통적인 양식은 오래 보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작가의 풍부한 창작의욕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의 하나가 석등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석등은 간석, 화사석, 옥개석 등의 부재들의 모양새가 모두 평면 8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형양식이라 하였다. 즉, 이 양식을 기본형이라 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양식 시대가 하강함에 따라 점차로 변형된 양상이 발생되어 갔다. 그러나 이형양식은 석등 전체가 완전히 변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주로 간주부에 한하여 변이한 양식을 가리킨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면 이형양식은 ① 고북형, ② 사자형, ③ 인물형, ④ 운룡형¹¹⁾ 등의 4종류가 알려져 있다.

1) 鼓腹型

새로운 양식은 전형약식에서 불안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간주석을 개량하여 안정감을 준 형태로 이는 외형상 장고형(長鼓型)의 구조를 갖추게 된 고북형 양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개선사지석등, 화엄사석등, 실상사석등, 선림원지석등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석등은 안정감을 주는 대신 전형석등 보다는 우둔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매우 화려한 장식이 새겨져 있다. 즉 장식등의 성격을 취하고 있으며 이같은 양식의 발전은 교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살펴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지상과 천상간에 33천이 있으며 그 위에는 수미산(須彌山)이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화사(火舍)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수미산과 지상사이의 공간은 의당 간주석으로 받쳐지고 있는 셈이다. 지상에서 수미산을 받치고 있는 간주석은 자형(字型)의 쌍내곡(雙內曲)을 이루고 있는데 불경에 의하면 내곡된 부분의 주변에는 태양과 달이 운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설명에 따라 조성된 석등이 고북형 간주석이며 이 간주의 상하에 배치된 연화대는 각각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이 간주의 중간에 윤부(輪部)가 배치되어 있는데 윤(輪)의 앞뒤와 좌우의 사면에는 각각 사엽문(四葉文)을 양각하여 태양과 달의 운동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 우주관을 묘사한 고북형 석등은 전형계통의 석등보다 규모가 크며 우리나라 최대의 석등인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앞 석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석등이 갖는 실용성을 주목하여 보면 그 완전한 예로서 실상사 석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제작연대가 확실한 것으로는 개선사지석등으로 이는 신라 경문왕 때인 함통(咸通) 9년(868)에 세웠음을 명문¹²⁾에 의해 알 수 있다.

11) 雲龍型은 고려기에 이르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12) 개선사지석등에는 건립연대를 밝힌 1차 명문 56자와 제2차에 첨가된 명문 77자, 도합 133자가 석등 화사석에 음각된 금석문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고복형 양식의 기원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으나 부도의 중대석에서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도 있으며 병형(瓶形)에서 또는 불상의 가자좌(茄子座)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양식의 실례가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가 수집될 때까지 그 추정을 미루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의견을 약기하면 팔각간주자체의 형태와 불완전한 감이 그 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8각 간석 위에 놓여지는 화사석의 형태가 거대하게 되고 따라서 하대, 상대, 옥개석 등이 점차로 과대과중(過大過重)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중한 하중이 직접적으로 간주석에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간주석은 상대석 이하 부재를 떠받친 임무를 맡을 뿐 아니라 상대 이상의 넓은 면적의 하중을 집결시켜 하대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용된 부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부재에는 상대 이상 부재에서 주는 하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으로부터 반대로 동량(同量)의 부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에 발생하는 압력이 합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세장한 8각 간주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형이 고복형상이 아닐까 한다.

즉, 상하에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하여 점차로 간주부준이 팽창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마침내는 폭발하려는 순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팽창된 중간부분에 대를 둘러 미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하중과 부력을 적절히 조절한 역학과 미적 감각을 종합하여 조형예술로 전개한 신라인의 창의적인 양식이 바로 고복형계 간주로 등장시켰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의상(意想)에서 신라인들은 고복면에 장식문을 첨가함으로써 미적 감각을 더욱 충족시켰던 것 같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복형 간주석계 석등은 모두 9기이며 이중에 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것은 5기이다. 즉, 합천 청량사 석등, 담양 개선사지 석등, 구례 화엄사 각황전 석등, 남원 실상사 석등, 양양 선림원지 석등 등이다.

제1차 명문: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 大娘主願燈立, 炷 唐咸通九年 戊子中春夕 繼月光前 國子監 鄉沙千金 中庸送上油糧業租三百碩 僧靈 建立石燈.”

제2차 명문: “龍紀三年辛亥十月日 僧入雲京租 一百碩鳴呼比所里公書俊休二人 常買分石保坪大業渚沓四結 畦○○ 土南池宅土西川國○○ 東令行土北同 奧沓 十結 畦上南池宅土 ○/東令行土西北同.”

이들 5기의 석등은 모두 당시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재하여 있어 주목되며 한국 석등 중 그 규모로 보아 최대의 작품이 이 종류에 속하고 동양 최대 혹은 세계최대의 고대석등으로 추정된 것이 이 계통에서 출현되고 있다.



(사진 17) 청량사 석등



(사진 18) 개선사지 석등



(사진 19)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사진 20) 실상사 석등



(사진 21) 선림원지 석등

2) 獅子型

우리나라에서 사자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어 금석조형(金石造形)에 나타난 것은 삼국 말기부터라고 생각된다. 그 후 사자의 조각은 더욱 발달되어 탑상의 대좌뿐만 아니라 능묘 등에 배치하게 되었다. 석등 간주를 사자상으로 대신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추세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 같은 특이한 양식은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신라의 창안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형석등의 하나인 사자석등은 쌍사자 석등과 단사자 석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쌍사자석등은 신라 후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단사자 석등보다 선행하는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쌍사자 석등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법주사쌍사자석등과 옥룡사지석등(중흥산성석등), 영암사지석등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진 22) 법주사 쌍사자 석등



(사진 23)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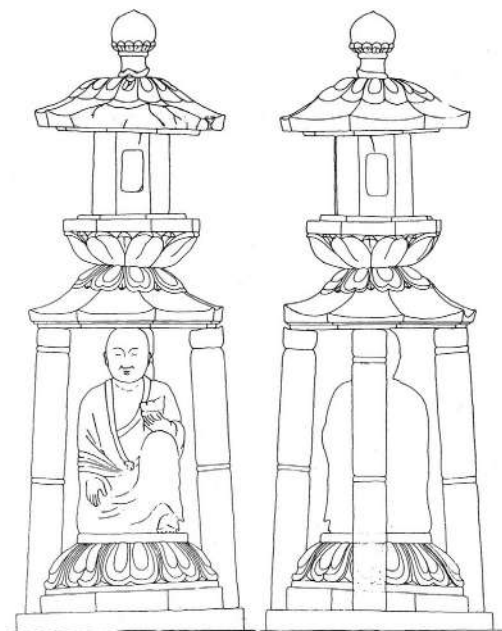
3) 人物型

고북형, 사자형 석등과 함께 발달을 보게 된 이형석등으로는 주부(柱部)에 해당하는 간주석 대신 인물상으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석등이 있다.

인물상으로 대치한 대표적인 예로는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앞에 배치된 석등으로 이곳에 있는 인물상은 이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연기조사상(煙起祖師像)이다. 전설에 따르면 연기조사는 부모의 명복을 항상 빌기 위해 현등하고자 자기 스스로 등을 머리에 이게 되었다고 한다.¹³⁾ 그 외에 또 하나의 석등은 내금강산에 있는 금장암(金藏庵) 사사자삼층석탑 앞에 세워져 있는 석등을 들 수 있다.



(사진 24) 화엄사 사사자 석탑 앞 석등



(도면 4) 화엄사 사사자 석탑 앞 석등 입면도

13) 이는 湖巖美術館 소장 「新羅華嚴經寫經」의 跋文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경은 1977년경 세상에 알려진 것으로 經題는 『大方廣佛華嚴經 卷冊三』으로 되어 있다. ‘天寶十三載甲午八年一日初己未載二月十四日 一部彫成內之城內願旨者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第一思賜父母爲內’라 한 내용으로 이루어 볼 수 있다.

V. 結 論

석등은 한반도 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화강암의 혜택으로 시대와 시기를 달리 하면서 다종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석등의 기원은 삼국말기부터 시작하여 신라시대에 매우 발달되었으며 이들의 현존 또는 발견된 위치는 당탑간(堂塔間)이었다. 이는 불경문 중에 「탑조제형상전이설공양(塔廟諸形像前而設供養)」 한 구절을 볼 때, 등구(燈具) 시설이 옥내는 물론이요 옥외에 시설되었다는 사실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발상지는 물론, 불교문화를 정돈 완성시킨 중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삼국기에 해당된 석등 자료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 그러므로 석등은 한국의 창의적인 소산물로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까지 석등의 양식적인 발전상을 요약해 보면,

첫째, 삼국말 백제시대인 A.D 600년부터 40년간에 석등의 조형양식(祖型樣式)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이들의 주부재인 화사석의 형태는 8각형으로 각면은 민흘림을 취하고 있다. 하대 연화석의 평면 계획은 방형을 취하고 있는 백제시대 석등의 위치는 당(堂) 중앙선상의 당탑(堂塔) 사이에 배치되고 있다.

둘째, 통일신라시대인 A.D 668년으로부터 124년간의 신라문화가 전성하던 시간에 전형양식(典型樣式)이 유행된 것으로 화사석은 정8각이며 하대 연화석은 원형(圓形) 평면 계획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하대하석 면에는 안상을 배치하였다. 또 간석은 세장한 8각주를 취하고 있으니 이는 조형양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등의 위치도 같다.

셋째, A.D 800~935년간에 발생한 변형 양식과 함께 전형양식이 병행하여 발달되었으니 변형양식은 간주석이 종래의 세장한 8각주에서 고북형, 쌍사자, 인물상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 하대석 부분에 있어서도 동시대의 전형양식계에 있어서도 역시 8각으로 변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부재가 정8각으로 통일성을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전부재의 공백된 부분에는 남김없이 장식을 가한 것도 특징의 하나라 하

졌다. 또한 시대가 하강됨에 따라 석등이 설치된 위치가 탑 앞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등의 주부재인 화사석과 이를 떠받고 있는 대좌의 변화로 제작된 시기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佛說施燈功德經』

『釋門儀範』

『華嚴經』

大苦岩治, 「印度に於ける石燈の數例」, 『史蹟と美術』 第七輯, 第69號.

鄭明鎬, 「百濟時代の 石燈」, 『馬韓・百濟文化』 제1집,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75.

鄭明鎬, 「韓國石燈目錄」, 『考古美術』 第13輯, 考古美術同人會, 1968.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鄭明鎬, 「Nepal 石燈에 對한 考察」, 『東國史學』 제15・16집, 1981.

朝鮮總督府, 『韓國金石總覽』 上, 아세아문화사, 1978.

黃壽永, 「益山彌勒寺址의 百濟石燈」, 『考古美術』 제3권 제12호, 考古美術同人會, 1962.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일지사, 1976.

高麗와 朝鮮時代の 石燈

崔 仁 善*

I. 머리말

II. 고려시대의 석등

III. 조선시대의 석등

IV. 고려와 조선시대 석등의 특징

I. 머리말

석등은 석탑, 부도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 건축물을 대표하는 불교 조형물 가운데 하나이다. 석등은 돌로 만들어진 등구(燈具)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등화(燈火)를 장치할 수 있는 등감(燈龕)이 있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등구로서의 석등은 불교의 전래와 함께 불전 혹은 탑 앞에 설치하여 그곳을 밝혀주는 불타(佛陀)의 광명(光明)을 상징하였고, 공양의 의미와 부합되어 헌등(獻燈) 또는 광명등(光明燈)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분묘 앞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명등(長明燈)이라 하였다.

* 순천대학교 인문학부(사학전공) 교수

‘석등(石燈)’이란 용어는 891년(진성여왕 5)에 건립된 담양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의 화사석 명문에 “건립석등(建立石燈)”이라 하여 이 석등에 처음 등장한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1093년(선종 10)에 건립된 나주 서문석등의 간주석 명문에 “등감일좌석조(燈龕一座石造)”라 하여 등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등 자료는 현재까지 280여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완전한 석등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60여기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그 부재만 남아 있고 능묘에서 발견된 자료를 추가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석등은 주로 사찰과 능묘 그리고 그 유적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궁궐이나 저택 등의 유적지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

60여기의 완전한 석등은 백제시대의 것은 그 부재만 있을 뿐 완형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신라시대 석등 26기, 고려시대 석등 31기, 조선시대는 불교사원의 석등 7기 그리고 능묘 앞에 건조된 석등이 있다.

석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정명호교수에 의해 우리나라 석등의 목록이 작성되었고, 뿐만 아니라 석등의 기원문제, 형식 분류, 양식론, 석등의 배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¹⁾ 하지만 정확한 실측 자료가 미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2년부터 연차적으로 석등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물 간행하여 학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²⁾ 그리고 최근에 한국 석등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 간행되었다.³⁾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석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2)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查報告書Ⅰ』 竿柱石編, 1999.

_____, 『石燈調查報告書Ⅱ』 異形式編, 2001.

3) 홍선, 『석등』, 놀와, 2011.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Ⅱ. 고려시대의 석등

고려시대의 석등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완성된 전형양식을 따르는 석등들로 많지만,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석등들이 조성되어 고려 문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대의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8각을 기반으로 한 전형양식과 4각, 6각의 평면을 보이는 석등⁴⁾, 고북형, 쌍사자, 인물상, 부등변팔각형 등의 특수형 석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공민왕릉을 위시하여 이 후 능(陵)이나 묘(墓)에 석등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능묘석등도 나타나고 있다.⁵⁾

1. 전형양식 석등

이 양식의 석등은 방형의 지대석 위에 복련이 조각된 8각 하대석, 그 위에 8각 간주석, 8각 옥개석을 올리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은 백제와 신라,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며 확립되어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에서 그 절정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형양식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승되어졌다. 고려시대 8각형 전형양식의 석등은 <표 1>과 같으며, 대표적인 석등 몇 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박경식은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6각인 형태와 하대석부터 화사석까지 4각인 것과 하대석과 간주석은 8각 혹은 부등변팔각형을 유지하면서 화사석과 옥개석만 4각인 형태를 고려식 석등으로 분류하여 새로운 분류안을 내놓고 있다(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pp.334-335).

5)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p.193.

〈표 1〉 고려시대 전형양식 석등⁶⁾

유형	석등명칭	소재지	높이(cm)	비고
전형양식	무량사 석등	충남 부여	270	
	신륵사 보제존자석종알 석등	경기 여주	200	
	동도사 석등	경기 용인		화사석 결실
	봉선사지 석등	강원 철원		
	법주사 약사전 앞 석등	충북 보은	270	
	법주사 팔상전 앞 석등	충북 보은	300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	충북 충주	380	
	도림사지 석등 부재	충남 청양		화사석, 옥개석 결실
	용담사 석등	전북 남원	248	하대석 매물
	금산사 석등	전북 김제	345	
	남원 만복사지 석등 부재	전북 남원		하대석만 유존
	나주 서문 석등	전남 나주	330	
	영광 신천리삼층석탑앞 석등	전남 영광		화사석 결실
	송림사 석등	경북 칠곡	256	
	인각사 석등 부재	경북 군위		화사석, 옥개석 결실
	비로사 석등 부재	경북 영주		상대석, 화사석 결실
	군위 화본리 석등 부재	경북 군위		하대석, 상대석, 화사석 결실

1) 무량사 석등(사진 1, 보물 제233호)

지대석은 방형으로 하대하석과 일석으로 모두 4매의 석재로 조립하였다. 하대상석은 구형의 복엽 8판의 복련 하단부에 8각 받침이 마련된 반면에 상면의 간주받침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간주석은 통식의 8각이다. 상대석은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로 복엽 8판의 양면이 조식되어 있고, 하단에는 희미한 간주받침이 1단 있으나 상단에는 화사석 받침은 없다. 화사석은 4면에 방형의 창이 뚫리고 나머지 4면이 화사벽인 8각으로 화창

6) 박경식, 앞의 책, p.336(고려시대 석등 일람표)를 재인용하였다. 앞으로 작성할 <표 2> 역시 이 표를 참고하여 인용할 것이다.

이 있는 면이 화창이 없는 면보다 어 부등면 8각을 이룬다. 내부 바닥에는 한 단 높여 등화구 시설을 하였고, 외부 화창의 방형 외곽과 윤곽대 내외에는 못 구멍이 2개씩 6곳에 모두 12개씩 뚫려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거의 사선을 긋고 있고 합각되어 있는 곳에 우동이 뚜렷하고 상면과 상륜부가 한 돌로 연결되어 있다. 상륜부는 연봉형의 보주와 횡선이 장식된 보륜은 옥개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석등의 뒤로 5층 석탑과 극락보전이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있어 석등의 배치에 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⁷⁾ 즉, 석탑-석등-법당의 전통적인 배치에서 벗어나 석등이 맨 앞에 위치한 새로운 형태의 배치법을 보이는 것이다.⁸⁾



(사진 1) 무량사 석등



(사진 2)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2)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사진 2, 보물 제231호)

신록사의 나옹화상 석조부도 앞에 위치한 것으로 높이 2m 규모의 석등이다. 지대석은 평면 8각으로 조식이 없는 형태이다. 한 돌로 구성된 기단부는 전체적으로 낮게 조성되

7)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査報告書 I - 竿柱石編』, 1999, p.121.

8) 鄭明鎬, 앞의 책, pp.295-319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어 부도 및 불상의 대좌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하대석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그 위로 짧은 간주석에는 모서리를 구획하여 안상을 배치하였다. 상대석에는 복엽 16판 양련을 조식하였으며, 상면에는 받침 없이 화사석을 올렸다. 화사석은 높게 조성하여 여타 석등과는 대조적인 것이 특징이다. 화창은 각 면에 1개씩 모두 8개를 뚫었는데,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사라센 계통의 화두창(火頭窓) 양식을 따르고 있다.⁹⁾ 또 화사석의 우주에는 울동감 넘치는 반룡(蟠龍)이 장식되어 있으며, 화창의 윗면에는 비천상이 장식되어 있다. 8각의 옥개석은 비교적 낮게 조성되었는데, 우동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하면에는 1단의 옥개받침과 낙수홈이 있으며, 정상에는 옥개석과 한 돌로 조성한 복발위에 연봉형의 보주를 놓았다.

이 석등은 나옹화상의 부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가람배치상의 석등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석등이 부도와 연관 지어 조성된 경우는 선림원지 석등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석조부도 앞에 건립되는 석등의 전형이자 장명등의 조형을 이루는 대표적인 석등이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나옹화상의 부도와 탐비가 건립되던 1379년(고려 우왕 5)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3)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사진 3,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하대석은 하대하석과 연화대석이 한 돌이며, 다듬지 않았다. 연화대석의 연판은 복엽 8판 복련으로 원형을 이루며 너비는 넓은 편이고, 높이는 낮다. 연화대석 상면에는 간주석을 받치는 8각의 1단 받침이 있다. 간주석은 8각이다. 상대석의 하석에는 1단의 원형 받침이 있고, 복엽 8판 양련으로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전형적인 8각으로 네 면에 화창을 뚫었다. 옥개석은 일부가 깨어졌고, 전체적으로 낮게 조성되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연화관이 조성되었으며, 정상에는 높은 받침석을 놓고 연화문이 장식된 보주를 놓았다. 이 석등은 전형적인 8각형으로 받침의 축소, 상대석 하대석의 원형 연화문, 옥개석 능선의 변화 받침의 축소, 절수구의 생략 등 소략해지는 기법 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9) 鄭明鎬, 앞의 책, p.252; 박경식, 앞의 책, p.338.

10) 정명호, 앞3의 책, pp.251-253; 박경식, 앞의 책, pp.338-339.

4) 나주 서문 석등(사진 4, 보물 제364호)

이 석등은 본래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읍성의 서문 안에 있었던 것을 1929년 경복궁으로 이진한 것인데 당시 화사석, 보주를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다르게 보인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상면에 2단의 받침이 한 돌로 건조되었다. 또 지대석의 각 면에 우주와 탕주를 모각해 3면으로 분할한 후 각기 다른 문양을 가진 안상을 1구씩 조식하고 있다. 하대석은 8각으로 각 모서리에 우주를 표현하였고, 각 면 내부에는 화문이 양각된 안상, 상면에는 복엽 8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간주석은 8각으로 각 면은 길다란 액을 조성하고 내부에 8행의 명문을 다음과 같이 음각하였다.

南瞻部洲高麗國羅州」中興里□長羅在□應」□□□□光□□□□」聖壽天長百穀豐登」錦邑安泰富貴恒存」願以燈龕一座石造排立」三世諸佛聖永獻供養」大安九年癸酉七月日謹記」

남섬부주(인간세계) 고려국 나주 중흥리 <결락> 황제가 만수무강하기를, 모든 곡식이 풍년이 들기를, 금읍(錦邑 : 나주)이 편안하기를, 부귀(富貴)가 항상 함께하기를, 발원하면서 이에 등감(燈龕) 1좌(坐)를 돌로 만들어 세운다. 삼세의 여러 부처와 성인들(三世諸佛聖)에게 영원히 공양을 바친다. 대안(大安) 9년 계유년(1093, 선종 10) 7월 일에 삼가 기록한다.¹¹⁾

위의 명문을 통해 대안(大安) 9년(1093)의 정확한 건립연대, ‘등감(燈龕)’이라는 석등의 명칭, 건립의 목적 등이 명시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이다. 상대석은 복엽 8판의 양련이 조식되었으며, 상면에는 2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화사석은 새롭게 조식한 것으로 8각으로 네 면에 화창을 내었다. 옥개석은 거의 8각 입방체를 이루고 있고, 처마의 상단에 각 모서리마다 귀꽃이 장식되어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3단 받침을 놓고, 그 위에 옥개석과 동일한 보개를 올렸다.

11)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長羅在□應」□□□□光□□□□” 부분을 국립문화재연구소(주 5의 책, p.149.)에서는 “□長羅在堅應」迪孫□先月心光□□心”으로 판독하고 있다.

5) 금산사 석등(사진 5, 보물 제828호)

이 석등은 지대석으로부터 상륜부까지 전체적으로 완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대석과 연화대석은 한 돌이며, 지대석은 넓은 방형으로 중심부에 원형의 1단 받침을 두었다. 하대석은 복엽 8판의 복련으로 조식하였고, 상면에 8각의 짧은 받침을 두고 그 위에 간주석을 놓았다. 간주석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형태로 배흘림 양식을 보이며, 각 모서리마다 우주를 모각하였다. 상대석의 하단에는 1단의 받침이 있고, 하대석 보다 크게 조식하였다. 복엽 8판의 양련이 조식되었으며,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을 두었다. 화사석은 8각으로 간주석과 마찬가지로 배흘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네 면에 화창을 뚫었다. 옥개석은 넓게 조각했으며, 하면에는 호각형 2단 받침이 조출되었다. 전각부에는 귀꽃을 장식하였으나,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상면에는 원형의 받침을 두어 상륜부를 받치고 있다. 상륜부는 복발·보륜·보주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복발은 원구형, 보륜은 화로형, 보주는 피라미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석등의 특징은 하대석의 원형받침, 배흘림 양식의 간주석과 거기에 표현된 우주, 상대석의 연화문의 양식 등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을 보이고 있다.¹²⁾



(사진 3)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



(사진 4) 나주 서문 석등



(사진 5) 금산사 석등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187.

2. 육각과 사각형의 석등

고려시대가 되면 삼국시대에 확립된 평면 8각의 석등의 전형양식과 더불어 새롭게 6각, 4각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석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존의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양식으로 고려식 석등으로 보는 견해¹³⁾도 있다.

〈표 2〉 육각과 사각형의 석등

평면형태	석등명칭	소재지	높이(cm)	비고
6각	화천 계성사지 석등	강원 화천	279	고북형 간주석
	자혜사 석등	황해남도	390	
	정양사지 석등	강원 금강	300	
	장연사 석등	강원 금강		
	해인사 원당암 석등	경남 함천	170	화사석 결실
4각	관촉사 석등	충남 논산	600	
	개성 현화사지 석등	개성	430	
	개성 개국사지 석등	개성	380	
	개성 만월대 석등	개성	300	화사석 4각 기둥 결실, 현재 방형의 석재가 유존
	금강산 묘길상마애불앞 석등	강원 금강	370	
	충주 미륵리사지 4각석등	충북 충주	250	

1) 육각 석등

① 화천 계성사지 석등(사진 6, 보물 제496호)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사지에 위치한 석등이다.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6각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나, 간주석만 전형적인 고북형식 이루고 있다.

하대석은 6각으로 단판 복엽 12판의 복련이 조식되었다. 상단에는 원형의 1단 받침이

13) 박경식, 앞의 책, pp.394-455. 「고려식 석등」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있고 그 위에 간주석을 받치고 있다. 간주석은 원형으로 상·중·하단에 원주와 화문이 조식되어 있어 전형적인 고북형 양식을 가지고 있다. 상대석은 6각으로 하대석과 같은 양식의 12판 양련이 조식되었다. 화사석은 6매의 석재를 엮어서 조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6개의 화창이 만들어졌다. 옥개석은 6각으로 낮게 조성되었으며,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처마 끝에 귀꽃이 조성되었다. 정상에는 복발과 그 위에 보주가 올려 있다.

이 석등은 옥개석의 형식에서 큰 차이를 보일 뿐 다음에서 살필 정양사지 석등과 매우 흡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¹⁴⁾ 간주석을 제외한 부재가 6각을 이루고 있어 실상사 석등의 양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¹⁵⁾ 계성사지 석등은 정양사지 석등과 고북형의 간주석을 제외하면 여러 면에서 양식적인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보아 건립연대는 고려시대 초반으로 추정 된다.¹⁶⁾



(사진 6) 화천 계성사지 석등



(사진 7) 정양사지 석등

14) 이 석등을 정명호교수(앞의 책, p.226)는 육각석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박경식교수(앞의 책, p.456)는 고려 특수형 가운데 고북형 석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15) 정명호는 계성리 석등을 6각 석등으로 분류하였는데, 간주석을 제외한 부재들의 평면이 6각인 점이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정명호, 앞의 책, p.231).

16) 박경식, 앞의 책, p.459.

② 정양사지 석등(사진 7)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 소재한 정양사지 경내에 건립된 석등이다. 3층 석탑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모두 평면이 6각을 이루고 있다.

지대석은 부분적으로 매몰된 탓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방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대석은 6각으로 1단의 받침과 상단이 한 돌로 조성되었다. 상단의 곁에는 단엽복판 12판 복련이 조식되었으며 상면에는 낮은 받침이 있다. 간주석은 원통형으로 가늘게 조성하였다. 전체를 원통형으로 3등분하고 있는데, 이는 고북형 간석에서 파생된 퇴화형으로 보인다.¹⁷⁾ 상대석은 하대석과 비슷한 크기로 동일한 양식의 연화문을 조식하였다. 상대석은 상단은 하대석의 하단과 같은 받침이 있고, 그 위에 화사석을 올렸다. 화사석은 6매의 석재로 조립하였고, 상대석과 옥개석과 크기가 같아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을 준다. 각 면에는 조립한 사이에 타원형의 화창을 두었다. 옥개석은 낙수면이 급하고 처마는 전각에 이르러 반전을 이루고 있다. 정상에는 반구형의 석재가 놓여있다.

이 석등의 특징은 평면 6각 이외에도 원형의 간주석을 채용하여 평면의 다양성을 시도하였고, 퇴화된 양식의 고북형 간주석으로 고려시대에 보이는 새로운 양식이다. 또 통일신라시대의 화사석이 한 돌에 화창을 뚫는 형태에서 6매를 조립한 형식으로 고려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③ 자혜사 석등(사진 8)

이 석등은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에 위치한 자혜사 대웅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5층 석탑 전면에 건립되었는데,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6각으로 조성되었다. 지대석은 매몰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방형으로 상면에 1단의 6각 받침인 것으로 보인다. 하대석은 상단이 하단보다 넓게 조성되었으며, 복엽 12판 복련을 조식하였다. 상면에는 낮은 2단의 받침이 있고 그 위에 간주석을 올렸다. 간주석은 6각으로 굽다. 상대석은 하대석에 비해 매우 작고 얇은 편이고, 단판 12엽 양련을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6각으로 전·후면에는 방형의 화창을 두었고, 나머지 각 2면이 만나는 모서리에 인동문이 투각된 화창을 뚫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방형과 인동문의 화창이 반복되는 새로운 형태의

17)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説集 I - 石造物編』, 1997, p.161.

18) 박경식, 앞의 책, pp.396-397.

화사석이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옥개석은 낮게 조성되었는데, 상대석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고 있다. 전각의 모서리에는 귀꽃을 장식하였다. 상륜부는 한 돌로 3단으로 구획하였다.

이 석등은 평면이 6각으로, 간주석과 화사석이 짧고 굽게 조성되었으며, 화사석의 화창의 모양이 인동문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석등임을 알 수 있다.¹⁹⁾

④ 해인사 원당암 석등(사진 9, 보물 제518호)

해인사의 암자인 원당암에 건립되어 있는 석등으로 점판암으로 조성되었다.

지대석은 6각 화강암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위에 하대석을 올렸다. 하대석은 6각으로 단판 복엽 12판의 복연을 장식하였고, 상면에는 낮은 1단 받침과 홈을 만들어 간주석을 결구시켰다. 간주석은 부등변팔각형으로 하대석과 상대석에 비해 너비가 좁고 길게 조성되었다. 상단과 하단에 「上」과 「下」자를 음각하였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매우 낮게 조성되어 전형 양식의 석등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 8) 자혜사 석등



(사진 9) 해인사 원당암 석등

19) 정명호, 앞의 책, pp.235-253; 박경식, 앞의 책, pp.394-396.

화사석은 결실되었다. 옥개석은 매우 낮게 조성되었으며, 현재 화사석이 없는 관계로 상대석 위에 놓여있다. 경사진 낙수면을 볼 수 없으나, 6각은 뚜렷하게 보인다. 정상에는 화강암으로 조성된 원통형 보주가 있다.

이 석등의 건립 연대에 관해 하대석과 상대석에 조식된 연화문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 초반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 된다.²⁰⁾

2) 4각 석등

① 관촉사 석등(사진 10, 보물 제232호)

충남 논산시 관촉사에 건립된 높이 6m의 대형 석등이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전면에 건립되어 있는데, 화사석과 옥개석이 방형이다.

지대석은 3매의 돌을 방형으로 연결하여 만들었다. 상대석은 2매로 하단은 방형으로 각 면마다 안상이 3개씩 조식되었고, 상단은 갑석 위에 원형을 이루며 단판 복엽 8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상단면에는 2단의 8각 받침을 두어 간주석을 받치고 있다. 간주석은 원주형으로 석등의 규모에 맞게 조성되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전체는 3부분으로 나누어 상단과 하단에는 2조의 원대(圓帶)를 양각했다. 중단은 별석으로 조성하였고, 4엽의 화문을 8곳에 조식하였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비슷한 양식인 단판 복엽 8판의 양련을 조식하였다. 상대석의 하면에는 2단의 8각 받침을 두었고, 연화문석 위에 판석형과 굽형 괴임대의 받침부를 두어 화사석을 받치고 있다. 화사석은 굽형 괴임대 상면에 장방형의 기둥 4개를 세워서 만들었고, 그 위에 각형 받침 2개를 세워 또 다른 화사석을 만든 2중 구조이다. 이처럼 4개의 기둥만으로 조성한 탓에 화사석은 완전히 개방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양식을 깨뜨리는 것으로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옥개석은 화사석과 마찬가지로 사각의 평면에 사각의 지붕을 가진다. 낙수면은 경사가 짧고 급하나 전각에 반전을 이루면서 처마에 두툼한 우동선과 만나 귀꽃을 조식하였다. 상단의 화사석은 하단의 화사석과는 다르게 동쪽과 북쪽면에만 기둥을 표현하였고, 동쪽 면을 파내어 갑실과 같은 형상이다. 옥개석은 하단의 옥개석과 같은 양식으로 규모만 작아졌고,

20) 박경식, 앞의 책, p.399.

정상에는 보주를 올렸다.

이 석등은 평면이 4각으로 기존의 양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고북형 간주석의 퇴화, 화창이 아닌 기둥을 이용한 개방형 2단의 4각 화사석 등이 그것이다. 특히 화사석은 목조 건축의 누각(樓閣)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석등 앞에 있는 석조보살입상이 968년(광종 19)에 조성되었으므로 이 석등 역시 같은 해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¹⁾

② 현화사지 석등(사진 11)

본래 개성시 개풍군 현화사지에 있던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경복궁으로 이전된 석등이다.

지대석은 방형인데,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한 돌로 조성한 하대석은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되었다. 하단은 4각으로 각 면에 3개씩 안상을 조식하였고, 상단은 원형으로 조성하여 단판 복엽 16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상면에는 2단의 원형 받침을 두어 간주석을 받치게 하였다. 간주석은 통일신라시대의 고북형 양식을 보이고 있어 앞선 시대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전체 비례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왜소하게 느껴진다.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누어 조성하였다. 하단은 단판 복엽 8판의 복련을 양각하고 받침을 두었고, 중단은 배를 불러 띠로 연결한 4엽 화문을 8곳에 양각하였으며, 상단은 단판 복엽 16판의 양련을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각 모서리에 고북형의 기둥을 세운 4각으로 앞서 살펴 본 관촉사 석등과 마찬가지로 개방형이다. 옥개석은 4각으로 처마에 인접해 높은 각형 1단의 받침을 두었고, 네 모서리의 전각에는 못 구멍이 뚫려 있다. 상륜부는 노반·양화·보륜·보개·보주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이 석등은 간주석이 고북형이라는 점에서 앞선 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화사석과 옥개석을 방형으로 조성하여 고려시대의 새로운 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개의 기둥을 세운 개방형 화사석은 앞서 살펴 본 관촉사 석등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21) 정명호, 앞의 책, p.246; 김원용·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2003, p.436; 박경식, 앞의 책, p.413.



(사진 10) 관촉사 석등



(사진 11) 현화사지 석등

③ 개국사지 석등(사진 12)

개성시 덕임리에 소재한 개국사지에 도괴된 것을 개성 박물관에 이전 복원되었다.

지대석은 확인할 수 없다. 하대석은 4각으로 하단에는 안상이 4개씩 배치되었고, 상단에는 복엽 단판 12판 복련이 각 모서리에 1개씩, 중앙부에 2개씩 모두 12판이 조식되었다. 상면에는 사각 2단 받침을 두어 간주석을 받치고 있다. 간주석은 상단과 하단의 모서리에만 4각이고 가운데는 각을 죽여 부등변팔각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개성시 만월대 석등의 간주석에서도 이러한 형식이 보이고 있어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²⁾ 상대석은 비교적 낮게 조성하였는데, 단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되었다. 화사석은 간주석과 같은 양식의 기둥을 각 모서리에 4개를 배치하여 개방된 형태이다. 옥개석은 4각으로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정상에는 원형의 보주를 올려 마무리 하였다.

이 석등은 관촉사, 현화사의 석등에서 나타난 고려 초기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즉, 관촉사와 현화사가 각기 앞선 시대의 양식을 변형한 것이었다면 개국사의 석등은 전제적으로 완전한 4각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개국사 석등의 조성연대가 앞의 두 석등 보다 더 후대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22)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査報告書 II-異形式篇』, 2001, p.223.



(사진 12) 개국사지 석등



(사진 13) 만월대 석등(『朝鮮古蹟圖譜』)

④ 개성 만월대 석등(사진 13)

개성시 송악동 만월대에 위치한 석등이다. 지대석은 없다. 하대석은 4각으로 하단에 안상을 2개씩 조식되었고, 상단은 4각으로 단판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다. 간주석은 4각형으로 상·하단의 모서리만 4각이고 나머지는 각을 줄였다. 이는 개국사 석등에서 보이는 양식이다. 상대석은 하대석의 상단과 동일한 양식으로 단판 복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되었다. 화사석은 현재 방형이나 옥개석의 하면의 모서리에 4개의 홈이 파여 있어 본래는 4각 기둥을 배치한 개방형이었던 것이다.²³⁾ 옥개석은 낮게 조성하였는데, 낙수면이 완만하다. 정상에는 보주형의 석재가 올려 있다.

이 석등은 간주석에서 모를 죽이는 개국사지 석등과 양식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조성연대가 비슷함을 알 수 있고, 지역적으로 개성지역에서 특히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금강산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사진 14)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만폭동 묘길상암에 있는 4각 석등이다. 하대석은 방형으로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연화문은 표현되지 않았다. 간주석은 평면이 사각이나 각 모서리를

23) 國立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p.229.

죽었다. 화사석은 원형의 기둥을 4개를 세워 개방형이다. 옥개석은 하단에 낮은 3단의 받침을 만들었고, 낙수면은 완만하고 지붕 곡선을 이중으로 처리하였다. 정상에는 보륜과 보주를 올려 마무리 했다.

이 석등은 하대석과 상대석에서 연화문이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조식의 간략화가 이루어져 고려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4) 금강산 묘길상마애불 앞 석등(『朝鮮古蹟圖譜』)



(사진 15)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

⑥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사진 15)

충청북도 충주시 미륵리사지에 건조된 석등이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높게 조성하였다. 하대석은 연화대석만 높게 만들었는데, 8각 평면으로 복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다. 간주석은 방형으로 길이는 짧고, 한쪽 면에만 내부에 화문이 있는 보주형 문양이 조식되어 있다. 상대석은 방형으로 하단에 낮은 2단의 받침이 있고, 16판의 양련을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각 모서리에 짧은 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가운데가 양 끝보다 긴 원주형으로 3등분 하여 조성하였다. 옥개석은 4각으로 낮게 조성하여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정

상에는 노반형의 부재가 있다.

이 석등은 개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4각 석등의 양식이 충주까지 내려온 것으로 개성의 것들과는 다르게 간주석의 길이와 화사석 기둥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간주석에 장엄 조식을 가해진 유일한 4각 석등으로 보인다. 조성연대는 고려 말기로 추정된다.

3. 특수형 석등

고려시대에 건립된 특수형 석등은 고북형, 쌍사자, 인물상, 부등변팔각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북형 석등

① 철원 고곶리 석등(사진 16)

강원도 철원군 북면 풍천리에 위치한 석등이다. 현재 이곳은 비무장지대로 접근할 수 없어 『조선 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등의 자료와 최근의 연구²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석등은 기본적으로 간주석을 제외한 모든 부재가 8각의 평면을 가지고,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완전하다. 하대석은 2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단에는 8각으로 각 면에 안상이 조식되었다. 상면에는 높은 받침을 놓고 그 위에 복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된 연화대석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귀꽃, 화문 등을 조식하여 장식성을 더했다.



(사진 16) 철원 고곶리 석등

24) 丁晟權, 「泰封國都城(弓裔都城)내 풍천원 석등 연구」, 『韓國古代史探究』 7,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pp.167-211. 그는 석등을 직접 볼 수 없어 『朝鮮古蹟圖譜』와 현존하는 유리원판사진 등을 이용하였다.

그 위에 권운문이 장식된 8각의 받침을 놓고, 간주석을 올렸다. 간주석은 편구형으로 하단에는 연화문의 줄기가 표현되었다. 상대석의 하단에 높은 받침을 놓아 간주석과 결합했으며, 상단은 복엽 8판 양련으로 장식된 연화대석을 조성했다. 화서석은 8각으로 네면에 화창을 뚫었다. 옥개석은 화사석에 비해 넓게 조성되었으나, 하대석의 크기와 같아 안정감을 주고 있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전각에 귀꽃이 표현되었다.

이 석등은 고북형이면서도 양식상의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대석에 보이는 안상이 같은 시기의 조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 간주석과 상대석 사이에 수평을 잡기 위한 부재가 보이는 점 등에서 후대에 보수하여 변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²⁵⁾ 또 건립연대에 관해 양식의 혼재가 있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하대석과 상대석에 장식된 연화문과 별석 받침 등은 주로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의 조형물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7) 이전의 고달사지석등 모습



(사진 18) 현재의 고달사지석등 모습

25) 박경식, 앞의 책, p.461.

2) 쌍사자 석등

① 고달사지 석등(사진 17~18, 보물 제282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등으로 보내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고달사지에 있었다. 상륜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한 양식이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각 면에 안상이 2개씩 조식되었다. 하대석은 방형 받침과 쌍사자가 한 돌로 조성되었다. 사자는 웅크리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의 쌍사자와는 다른 형식이다.²⁶⁾ 간주석은 2매로 쌍사자 위에 받침대와 중앙에 돌출된 고북형 간주석 형태로 모두 운문이 조식되어 있다. 특히 중앙에 돌출된 양식은 9세기에 조성된 고북형 석등의 간주석과 유사성을 보인다.²⁷⁾ 상대석은 부등변팔각형으로 한 돌로 조성되었는데, 하단에는 2단의 받침이 있고, 겉에는 8판의 복엽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화사석은 평면이 부등변팔각형으로 네 곳에 화창을 뚫었다. 옥개석은 부등변팔각형인데 이것은 화사석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상단에 복엽 16판의 복련을 조식한 것이 특이하다. 정상에는 2단의 받침이 있으나, 상륜부는 소실되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의 쌍사자 석등과는 완전히 다른 사자의 표현, 방형, 부등변팔각 등의 평면의 혼재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경기도 기전매장문화연구원에서 고달사지를 발굴조사하면서 석등의 옥개석이 출토되어 현재 옥개석을 올려놓았다.

3) 인물상 석등

① 금강산 금장암지 인물상 석등(사진 19)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금장암지 3층석탑 앞에 위치한 석등이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각 면에 안상이 2개씩 조식되었다. 인물상은 좌상으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세웠으며, 양 손은 가슴에 모았다. 인물상의 머리 정상을 편평하게 만든 후 상대석을 올

26) 통일신라의 쌍사자는 간주석을 대신하여 뒷발은 하대석을 딛고, 앞발은 상대석을 받치는 형상이다.

27) 박경식, 위의 책, p.471.



(사진 19) 금장암지 석등

렸다. 상대석은 곁에 복판 복엽 8판의 양련이 조식되었고, 상단에는 1단의 받침이 있다. 화사석은 8각으로 네 면에 장방형의 화장을 뚫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정상에는 원구형 복발, 보개를 올렸는데, 연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의 화엄사 사사자 3층석탑 앞 석등과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엄사의 인물상이 3개의 기둥으로 화사석을 받치는 반면, 이 석등은 기둥 없이 화사석을 받치고 있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보고 있는 견해²⁸⁾와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²⁹⁾가 있다.

② 구례 대전리 인물상 석등재(사진 20~21)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 대전저수지 위쪽 속칭 미륵골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 석조비로자나불입상³⁰⁾과 석조공양상 1구가 나란히 있다. 공양상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꿇어 세우고 있으며, 왼손은 꿇어 세운 무릎 위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고 오른손은 다섯 손가락을 펴서 항마촉지인처럼 오른쪽 무릎 위에 놓고 있다. 이 상의 좌우 담장 쪽에 절단된 8각 석주가 서 있는데 이 좌상과 분리되어 있어 성격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화엄사 효대에 자리 잡고 있는 사사자삼층석탑 앞의 석등을 살펴보면 이 석조물의 명칭과 용도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화엄사 석등은 간주석 대신에 가운데에 꿇어앉은 공양상이 있고 그 주위에 8각 석주 3개가 설치되어 기단의 복련석을 받치고 있는 이형석등이다. 화엄사석등의 공양상은 왼손에 찰잔과 같은 형식의 지물을 앞에 있는

28) 정명호, 앞의 책, p.190.

29) 박경식, 앞의 책, p.481.

30) 崔仁善, 「求禮 大田里 石造毘盧遮那佛立像에 대한 考察」, 『南佛會報』第2輯, 南道佛教文化研究會, 1992.

석탑의 기단부 입상(일명 연기조사의 어머니상)을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상을 화엄사의 창건주인 연기조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공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흔히들 공양상이라 부른다.

구례 대전리에 있는 인물상과 석주는 바로 화엄사 효대에 있는 석등을 모방하여 만든 석등 부재 가운데 하나이며, 언젠가 파손되어 각각 별도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성시기는 석조비로자나불입상의 양식, 주변에서 출토되고 있는 기와 등으로 볼 때 나말여초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³¹⁾



(사진 20) 구례 대전리 석조비로자나불입상



(사진 21) 구례 대전리 석조비로자나불입상, 공양상, 석주

31) 최인선, 「南岳祠址 주변 佛教遺蹟」, 『南岳祠址 地表調査報告』,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p.79.



(사진 22) 화엄사 효대 석등

4) 부등변팔각형 석등

① 군산 발산리 석등(사진 23, 보물 제234호)

이 석등의 원위치는 완주군 삼기면 삼기리인데 일제시기에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발산초등학교 교정에 위치하고 있다.³²⁾

지대석과 하대석은 한 돌로 조성하였는데 지대석은 방형이며, 하대석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겉에는 복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단에는 2단의 원형 받침을 두었다. 간주석은 원형에 가까운데 겉에는 한 마리 용이 간주석을 휘감고 승천하는 모습을 양각하였다. 상대석은 높게 조성되었고, 화문이 있는 단엽 8판의 양련이 표면에 조식되었다. 화사석은 부등변팔각형으로 1석으로 조성하였는데, 네 곳에 방형에 장방형에 가까운 화창을 뚫었으며, 각 모서리에 사천왕을 1구씩 총 4구를 조식했다. 옥개석은 8각으로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고, 상단에는 단판 복엽 8판의 연화문이 돌려 있다. 상륜부는 없다.

이 석등은 원형에 가까운 부등변팔각형, 간주석에 용이 조식된 점, 화사석에 사천왕이 조각된 점 등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립연대는 고려 초반으로 추정된다.³³⁾

32) 정영호, 「완주군 삼기리의 석불 2구」, 『고고미술』 44호, 1964.



(사진 23) 군산 발산리 석등



(사진 24) 통도사 관음전 앞 석등

② 통도사 관음전 앞 석등(사진 24,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70호)

통도사 관음전 앞에 건조된 높이 3.4m의 석등이다.

이 석등은 하대석부터 옥개석까지 평면이 부등변팔각이다. 지대석은 방형이고, 그 위에 부등변팔각의 하대석을 올렸다. 하대석은 한 돌로 하단을 부등변팔각으로 받침을 만들고, 각 면에 맞게 안상을 1개씩 배치하였다. 곁에는 보상화문이 장식된 8판의 복련을 조식하였고, 상단에는 3단의 받침을 만들어 간주석을 올렸다. 간주석은 부등변팔각으로 중간에 3개의 띠를 둘렀으며 각 면의 모를 살짝 죽인 형태이다. 이로 인해 간주석은 중심부가 약간 불룩하게 보이게 되었다. 상대석 하단에는 2단의 받침을 만들었고, 곁에는 10판 양련을 2중으로 조식했다. 상단에는 3단의 받침을 만들어 평면이 부등변팔각으로 되었다. 화사석은 상하로 긴 사각으로 네 면에 화창을 뚫었고, 모서리를 살짝 줄였으나, 옥개석 하단의 받침과 일치하지 않아 후대에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⁴⁾ 옥개석은

33) 정명호, 앞의 책, pp.217-224; 박경식, 앞의 책, p.487.

역시 8각을 이루며, 하면에는 3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낙수면은 상단에 단판 복엽 10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급하나,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정상에는 받침 위에 노반과 보주로 마무리 하였다.

이 석등은 고북형의 잔재가 남아있는 간주석의 형태 등으로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⁵⁾

4. 능묘 석등

능묘석등은 능이나 묘 앞에 설치된 석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장명등(長明燈)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석등은 대개 불가(佛家)에서 전당(殿堂), 탑(塔)의 사이나 앞에 위치한 헌등(獻燈)의 의미로 이어져 왔었다. 그러나 선림원 홍각선 사탑 앞에 석등이 놓이면서 위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석조부도 앞에 석등이 놓이기 시작하면서 왕실 능 앞에 놓이는 일종의 관습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민왕릉의 석등, 칠능동 고려 제3왕릉, 태조현릉 앞 석등,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앞 석등 등이 있어 주목된다.³⁶⁾

Ⅲ. 조선시대의 석등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불교의 위축으로 석조미술에 대한 건조가 활발하지 못했다.

34) 鄭明鎬, 「通度寺 觀音殿 앞 不等邊八角石燈에 대한 考察」, 『伽山 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卷下, 1992.

35) 정명호, 앞의 책, p.226; 박경식, 앞의 책, p.489.

36) 鄭明鎬, 앞의 책, pp.248-253.

석등 역시 시대적인 상황과 석등의 용도가 점차 불가(佛家)에서는 희미해지고, 비불가(非佛家)에서 장명등으로 전환되어³⁷⁾ 현재 4각, 쌍사자 등의 양식으로 7기만이 확인되고 있다.

〈표 3〉 조선시대의 석등³⁸⁾

유형	석등명칭	소재지	높이(cm)	비고
4각	통도사 개산조당 앞 석등	경남 양산	300	간주석에 음각
	여천 홍국사 석등	전남 여수	200	귀부 하대석, 4각 기둥에 인물상
	무안 법천사 목우암 석등	전북 무안	250	간주석에 음각
	함평 용천사 석등	전남 함평	240	
	현등사 함허당득통탑 석등	경기 가평	120	
쌍사자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	경기 양주	260	
	청룡사지 보각국사 정혜원용탑 앞 석등	충북 충주	220	하대석에 단사자 배치

1. 4각 석등

1) 통도사 개산조당 앞 석등(사진 25)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 개산조당 앞에 위치한 높이 3m의 석등이다.

지대석은 방형이다. 간주석은 전체적으로 나비형으로 상단과 하단이 넓고 중단에 2조의 선을 돌려 오목하게 하였다. 상단에는 「善男善女」, 「轉經佛事」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상대석은 방형으로 표면의 아무런 조식이 없고 둥글게 처리하였다. 화사석은 2중으로 하단에는 4개의 4각 기둥을 꽃아 개방형 화창을 만들었다. 옥개석은 방형으로 낙수면이 희미하나 전각, 처마를 표현하였다. 상단의 화사석은 규모와 화창이 없는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나 하단과 동일한 형태이다.

37) 鄭明鎬, 앞의 책, p.258.

38) 박경식의 <조선시대 석등 일람표>를 인용하여 재구성 하였다(박경식, 앞의 책, p.508).

이 석등은 양식적으로 관촉사 석등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변형된 고북형 간주석, 2중으로 된 화사석의 형태와 4각 기등을 이용한 개방된 형식 등이 관촉사 석등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 석등의 배치 즉, 개산조당 앞에 세워진 점으로 미루어 석조부도 앞에 세웠던 장명등의 의미로 파악하기도 한다. 양식의 간략화 등으로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³⁹⁾



(사진 25) 통도사 개산조당 앞 석등



(사진 26) 여수 흥국사 석등

2) 여수 흥국사 석등(사진 26)

전라남도 여주시 흥국사 대웅전 앞에 위치한 높이 2m의 석등이다. 현재 대웅전 오른쪽 암석 위에 놓여 있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석등은 온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하대석이 귀부인 점이 특이하다. 하대석에 해당하는 귀부는 소형으로 머리가 크며 큰 눈, 이빨, 갈기 등의 표현이 정교하지 못하다. 귀부의 하단에는 발과 꼬리가 없으나, 둥근 돌들을 배치하여 대체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39) 정명호, 앞의 책, pp.259-261; 박경식, 앞의 책, pp.509-511.

상단은 귀갑문을 표현하였으나, 불규칙하다. 간주석은 방형으로 모서리를 약간 죽였다. 상대석과 화사석은 한 돌로 조성하였는데, 상대석의 표면에는 비문(飛紋)을 조식하였다. 화사석은 4각의 기둥에 인물상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방형으로 서까래를 조출하였고, 낙수면에 기와골, 추녀 등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정상에는 보주를 올려 마무리 하였다.

이 석등은 하대석을 귀부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예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양식적으로 개방형 화사석을 이용한 점, 기둥에 인물상을 조각한 점 등은 고려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양식의 간략화 즉, 정교하지 못한 귀부, 상대석과 화사석을 한 돌로 이용한 점 등이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3) 무안 법천사 목우암 석등(사진 27,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2호)

전라남도 무안군 목우암 법당 앞에 위치한 높이 2.5m의 석등이다. 현재 하대석은 시멘트로 덮혀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8각 간주석 받침이 있다. 간주석은 세장한 8각으로 네 면에 “施主 大□□ 信浩/ 片手 金千立 徐弘發 別座 聰悟 化主 呂閑/ 呂字門 僧類造成/ 康熙 二十辛酉 四月 日”이란 명문이 있어 1681년(숙종 7)에 조성된 석등을 알 수 있다.⁴¹⁾ 이 석등의 시주는 신호(信浩)스님이 하였는데 그는 순천 대흥사에서 1665년에 주지를 역임하였다.⁴²⁾

상대석은 8각으로 곁에 8판의 화문을 조식하였는데, 변형된 연화문으로 추정된다. 화사석은 4각으로 하단을 화사석보다 좁은 굽을 두어 경계를 만들었다. 네 면에는 장방형의 화창이 뚫려 있고, 상단에는 額 형성되어 있다. 액은 끝에 우주를 모각하여 4면을 만들고 가운데 두 면에 문양을 음각하였다. 옥개석은 4각으로 2중 구조로 하단에는 낙수면이 짧고 각 모서리에는 용두(龍頭)와 해표상(海豹像)을 조식하였다. 상단에는 팔작지붕의 가옥 형태로 마무리 하였는데, 정상에 상륜부를 받칠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옥개석 상단이 상륜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40) 박경식, 앞의 책, pp.511-512.

41) 정명호, 앞의 책, p.263.

42) 최인선, 「여수 흥국사 소장 순천 대흥사동종에 대한 고찰 - 명문 분석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32호, 2009.

이 석등은 건립연대가 뚜렷하여 조선후기 석등의 양식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양식적으로 8각과 4각이 혼용된 점, 화사석이 2중으로 표현된 점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수 흥국사의 옥개석에서 보이는 가옥에 대한 정밀한 묘사가 이 석등에서도 보이고 있어 친연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⁴³⁾



(사진 27) 무안 법천사
목우암 석등



(사진 28) 함평 용천사 석등



(사진 29) 가평 현등사
함허당득통탑 앞 석등

4) 함평 용천사 석등(사진 28,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4호)

전라남도 함평 용천사 대웅전 우측에 위치한 높이 2.4m의 석등이다.

이 석등은 옥개석을 표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평면이 방형인 완전한 팔작지붕의 가옥형이다. 지대석은 넓은 방형이다. 하대석은 높게 조성하고 상단에는 복엽 단판 12판의 복련을 장식하였다. 그 위로 부등변팔각형의 간주석 받침을 놓았는데, 두 면에 각각 거북이를 한 마리씩 조식하였다. 간주석은 8각으로 하단의 간주석 받침 보다는 좁게 조성되었고, 각 면마다 명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康熙 二十四年乙丑六月日”이라 하여 1685년(숙종 11)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상대석은 1단의 띠를 조성하여 간주석

43) 정명호, 앞의 책, pp.261-263; 박경식, 앞의 책, pp.518-519.

44) 정명호, 위의 책, p.266.

과 경계를 지었고, 곁에 8엽 단판 양련을 조식하였다. 그 위에 방형의 화사석을 올렸는데, 각 면에 원형의 화창을 뚫었다. 또 화사석 좌우면과 상면에 운문을 음각하였다. 옥개석은 팔작 지붕을 엮은 가옥형으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 석등은 건립연대가 명확하고, 하대석·화사석·옥개석 단 2매의 부재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⁴⁵⁾

5) 현등사 함허당득통탑 앞 석등(사진 29,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9호)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에 위치한 높이 1.2m의 석등이다.

하대석부터 화사석까지 1매의 돌로 구성하였다. 하대석은 방형으로 높고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그 위로 방형의 짧은 간주석을 올렸다. 상대석은 하대석과 동일한 양식으로 조성되었다. 화사석은 상대석 상면에 낮은 단을 4개 만들어 그 위에 짧은 4각의 기둥을 놓았다. 옥개석은 평면이 4각으로 소박하다.

이 석등은 함허당 부도 앞에 있어서 장명등으로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고, 함허당 부도가 조성된 1433년에 같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에서 보여 당시 석조부도 앞에 장명등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선시대 사대부들 묘(墓)의 장명등 양식의 기본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다.⁴⁶⁾

2. 사자 석등

1)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사진 30, 보물 제389호)

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회암사지에 위치한 높이 2.6m의 석등이다. 이 석등은 평면이

45) 정영호, 「咸平 龍泉寺 三層石塔－朝鮮時代 石塔의 新例－」,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46) 정명호 교수는 조선시대 석등은 佛家에서는 方形, 王陵에서는 8각 기본형의 圓堂型, 方型, 사대부들은 方形의 장명등을 조성하였다고 하였다(정명호, 앞의 책, pp.285-291).



(사진 30)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

방형으로 무학대사의 석조부도 앞에 세워져 있다.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는 1353년에 연경에서 나옹(懶翁), 지공(指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법천사에서 나옹의 법을 계승하였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왕사가 되어 회암사에 머물었고, 1405(태종 5)년에 79세로 금강산 금장암에서 입적하였다. 1407년 영골을 모아 회암사에 모셨다.

지대석과 하대석은 한 돌로 조성 되었으며, 방형이다. 하대석의 상단에는 8판의 단판 복련을 조식하였고, 1단의 4각 받침으로 쌍사자를 받치고 있다. 간주석은 쌍사자가 서로 마주보며 뒷발로 하대석을 딛고 앞발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양식은 통일신라시대에

확립된 것으로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석은 방형으로 하단에 복엽 8판의 양련이 조식되었다. 화사석은 두 면에 장방형의 기둥을 세워 2개의 화창을 만들었다. 옥개석은 평면이 방형이고 보주까지 동일석이다. 추녀와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낙수면은 급하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쌍사자 양식을 계승하였고, 신륵사 석등과 같이 부도 앞에 세워 장명등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⁴⁷⁾

2) 청룡사지 보각국사 정혜원융탑 앞 사자석등(사진 31, 보물 제656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의 북쪽 계곡에 위치한 높이 2.2m의 석등이다. 이 석등은 보각국사 탑비, 석조부도와 일직선상에 위치하였다.

지대석은 방형으로 높게 조성하였다. 하대석은 귀부형의 단사자가 엮드려 있는 형상으

47) 정명호, 앞의 책, pp.269-270; 박경식, 앞의 책, pp.533-535.

로 전체적으로 장방형으로 만들고 등을 편평하게 조성하였다. 간주석은 방형으로 매우 낮게 조성하였고, 각 면에 화문이 든 안상을 1개씩 조식하였다. 상대석은 방형으로 복엽 8판의 양련을 조식하였고, 위에 1단의 받침을 두었다. 화사석은 방형으로 ㄱ형으로 조성하여 앞뒤로 화장을 만들었고, 각 모서리에는 배흘림기둥을 조식하였다. 옥개석은 방형으로 추녀와 사래를 표현하였고, 낙수면은 수직에 가까우나 처마는 곡선으로 완만하게 반전을 이룬다. 정상에는 원형의 찰주공이 남아있다.



(사진 31) 청룡사지 사자 석등

이 석등은 보각국사의 탑비, 석조부도와 일직선상에 위치한 석등으로 탑비와 석조부도가 1392~1393년 사이에 완성된 것을 밝히고 있어 조성연대가 조선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석조부도 앞에 조성되어 있어 장명등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양식적으로 한 마리의 사자가 웅크린 형태는 고려시대 고달 사지 석등에서도 보이는 바 양식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IV. 고려와 조선시대 석등의 특징

1. 고려시대 석등의 특징

고려시대의 석등은 전형양식 석등, 육각과 사각형의 석등, 특수형 석등(고북형, 쌍사

48) 정명호, 앞의 책, pp.271-272; 박경식, 앞의 책, pp.535-536.

자, 인물상, 부등변팔각형), 능묘 석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전형양식의 석등은 대체로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석등의 평면이 전대(前代)의 8각뿐만 아니라 6각, 4각, 부등변팔각형, 원형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형식의 석등이 나타나고 있다.

금강산 정양사 석등은 육각형 석등인데 간주석이 변화된 고북형을 이루어 육각과 원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관촉사와 개성 현화사지 석등은 사각형 석등인데 역시 간주석이 변화된 고북형식을 취하여 사각과 원형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개국사지 석등을 비롯한 일부 사각형 석등은 부등변팔각과 사각의 평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석등은 간주석에서 통일신라시대 석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 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 이 시대의 간주석은 8각, 6각, 4각, 부등변팔각, 고북형, 원형, 사자상, 인물상 등 다종다양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석등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화사석 또한 8각의 전형양식에서 벗어나 4각, 6각, 부등변팔각형 등 다양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4각형 화사석은 벽체 없이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워 전대(前代)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서리 기둥 역시 관촉사 석등의 경우 4각, 현화사지 석등의 경우 변형 고북형과 같은 원형, 개국사지 석등과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의 경우 부등변팔각형, 충주 미륵리사지 석등의 경우 원형 기둥을 세우고 있어 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양사 석등의 화사석은 우리나라 석등 가운데 가장 이채로운 형식이다. 삼국시대 이래 석등 화사석은 1매의 석재를 사용해 4개 혹은 8개의 화창의 화창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양사 석등 화사석은 평면이 육각이며, 6매의 석재로 화사석을 구성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석등 화창이 방형을 이룬 것과 대조되게 타원형으로 만들었다. 고려 석등 가운데 가장 특이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석등이다. 이 석등과 비슷한 형식을 갖춘 석등이 바로 화천 계성사지 석등이며, 두 석등은 옥개석 낙수면 경사, 반전된 귀꽃 등에서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등의 위치는 불교의 예배대상 즉 탑상(塔像)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부도 앞에 위치한 석등들이 늘어나 그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일찍이 통일신라시대 즉 9세기 중후반경에 조성

된 것으로 보인 선림원지 홍각선사 부도 앞에 있는 석등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석등만이 유일하게 통일신라시대에 조영되었고,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다가 고려시대 들어서서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회암사지 나옹화상 및 지공화상 부도 앞의 석등이 조영되어 스님들의 명복을 비는 헌등(獻燈)의 기능으로 변한 점 또한 특징이다. 이러한 석등의 기능변화 때문에 고려 후기의 왕릉, 조선시대의 왕릉과 사대부의 묘에 석등이 조영되었을 것이다.⁴⁹⁾

2. 조선시대 석등의 특징

조선시대는 유교가 새로운 국가의 통치이념이 되면서 불교가 위축되어 석조물에 대한 건조가 활발하지 못하였는데, 석등도 이에 영향을 받아 7기만이 확인되고 있다. 그것도 4각과 쌍사자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4각 석등은 고려시대에 출현한 양식으로 조선시대의 석등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4개의 기둥으로 만든 개방형 화사석, 부등변팔각의 간주석 등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쌍사자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쌍사자 즉, 간주석을 대체하는 양식을 가지는 것과 고려시대 하대석을 대체한 엷드린 사자의 양식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수법에서는 앞선 시대에 훨씬 못 미치나 양식을 계승한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 화사석에 판석을 이용해 화창을 만드는 방법, 옥개석의 지붕에서 가옥의 팔작지붕, 서래, 추녀 등의 표현이 명확하여 목조건축의 양식이 제대로 구현된 것도 조선시대 석등의 한 특징이다.

49) 정명호 앞의 책과 박경식 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참고문헌

- 김원룡·안휘준, 『한국미술의 역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시공사, 2003.
- 國立文化財研究所, 『石燈調査報告書Ⅰ』 竿柱石編, 1999.
- _____, 『石燈調査報告書Ⅱ』 異形式編, 2001.
-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説集Ⅰ－石造物編』, 1997.
- 박경식,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2013.
- 鄭明鎬, 『韓國石燈樣式』, 民族文化社, 1994.
- 鄭明鎬, 「通度寺 觀音殿 앞 不等邊八角石燈에 대한 考察」, 『伽山 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卷下, 1992.
- 丁晟權, 「泰封國都城(弓裔都城)내 풍천원 석등 연구」, 『韓國古代史探究』 7, 한국고대사 탐구학회, 2011.
- 정영호, 「완주군 삼기리의 석불 2구」, 『고고미술』 44호, 고고미술동인회, 1964.
- 정영호, 「咸平 龍泉寺 三層石塔－朝鮮時代 石塔의 新例－」,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 崔仁善, 「求禮 大田里 石造毘盧遮那佛立像에 대한 考察」, 『南佛會報』 第2輯, 南道佛教文化研究會, 1992.
- 최인선, 「南岳祠址 주변 佛教遺蹟」, 『南岳祠址 地表調査報告』,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 최인선, 「여수 흥국사 소장 순천 대흥사동종에 대한 고찰－명문 분석을 중심으로」, 『文化史學』 32호, 2009.
- 홍선, 『석등』, 놀와, 2011.

부록 1. 한국 석등 지정문화재 목록

연번	석 등 명	소 재 지	시 대	비 고
1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報恩 法住寺 雙獅子 石燈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통일신라	국보 제5호
2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求禮 華嚴寺 覺皇殿 앞 石燈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통일신라	국보 제12호
3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앞 석등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앞 石燈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부석사	통일신라	국보 제17호
4	구례 화엄사 사자자삼층석탑앞 석등 求禮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 앞 石燈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화엄사	통일신라	국보 제35호
5	장흥 보림사 석등 長興 寶林寺 石燈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52, 보림사	통일신라	국보 제44호
6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光陽 中興山城 雙獅子 石燈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통일신라	국보 제103호
7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報恩 法住寺 四天王 石燈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법주사	통일신라	보물 제15호
8	남원 실상사 석등 南原 實相寺 石燈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실상사	통일신라	보물 제35호
9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석등 南原 實相寺 百丈庵 石燈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447-76, 백장암	통일신라	보물 제40호
10	담양 개천사지 석등 潭陽 開仙寺址 石燈	전남 담양군 남면 개천동길	통일신라	보물 제111호
11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淸道 雲門寺 金堂 앞 石燈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운문사	통일신라	보물 제193호
12	여주 신륵사 보제존자석종앞 석등 驪州 神勒寺 普濟尊者石鍾 앞 石燈	경기 여주시 여주읍 신륵사길 73, 신륵사	고려	보물 제231호
13	논산 관촉사 석등 論山 灌燭寺 石燈	충남 논산시 관촉로1번길 25, 관촉사	고려	보물 제232호
14	부여 무량사 석등 扶餘 無量寺 石燈	충남 부여군 외산면 무량로 203, 무량사	고려	보물 제233호
15	군산 발산리 석등 群山 鉢山里 石燈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3	통일신라	보물 제234호
16	합천 청량사 석등 陝川 淸涼寺 石燈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청량동길 144, 청량사	통일신라	보물 제253호
17	임실 진구사지 석등 任實 珍丘寺址 石燈	전북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11-12	통일신라	보물 제267호
18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驪州 高達寺址 雙獅子 石燈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보물 제282호
19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陝川 靈岩寺址 雙獅子 石燈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 637-97	통일신라	보물 제353호
20	나주 서성문 안 석등 羅州 西城門 안 石燈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보물 제364호

연번	석 등 명	소 재 지	시 대	비 고
21	합천 백암리 석등 陝川 伯岩里 石燈	경남 합천군 대양면 상촌길	통일신라	보물 제381호
22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앞 쌍사자 석등 楊州 檜巖寺址 無學大師塔 앞 雙獅子 石燈	경기 양주시 회암사길 281	조선	보물 제389호
23	양양 선림원지 석등 襄陽 禪林院址 石燈	강원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선림원지	통일신라	보물 제445호
24	화천 계성리 석등 華川 啓星里 石燈	강원 화천군 하남면 명지령로	고려	보물 제496호
2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다층석탑 및 석등 陝川 海印寺 願堂庵 多層石塔 및 石燈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2, 해인사	통일신라	보물 제518호
26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앞 獅子 石燈	충북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청룡사지	고려	보물 제656호
27	김제 금산사 석등 金堤 金山寺 石燈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금산사	고려	보물 제828호
28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2기) 坡州 恭孝公 朴仲孫墓 長明燈(2基)	경기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879번길 172-34	조선	보물 제1323호
29	세종대왕기념관내 장명등 世宗大王紀念館內 長明燈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관 경내	조선	서울유형문화재 제42-10호
30	불교제중원 석등 佛教濟衆院 石燈	서울 강남구 삼성로 29, 경기여고	근대	서울문화재자료 제42호
31	재명석등(무진명석등) 在銘石燈(戊辰銘石燈)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고려	광주유형문화재 제5호
32	부인사석등 夫人寺石燈	대구 동구 팔공산로 967-28, 부인사	통일신라	대구유형문화재 제16호
33	부인사일명암지석등 夫人寺逸名庵址石燈	대구 동구 팔공산로 967-28, 부인사	고려	대구문화재자료 제22호
34	범어사석등 梵魚寺石燈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통일신라	부산유형문화재 제16호
35	지공선사부도 앞 석등 指空禪師浮屠 앞 石燈	경기 양주시 회암사길 281	고려	경기유형문화재 제49호
36	나옹선사부도 앞 석등 懶翁禪師浮屠 앞 石燈	경기 양주시 회암사길 281	고려	경기유형문화재 제50호
37	현등사함허당득통탑 앞 석등 懸燈寺涵虛堂得通塔 앞 石燈	경기 가평군 하면 운악청 계로589번길 73, 현등사	조선	경기유형문화재 제199호
38	표충사석등 表忠寺石燈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338, 표충사	통일신라	경남유형문화재 제14호
39	쌍계사석등 雙溪寺石燈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쌍계사	통일신라	경남유형문화재 제28호
40	통도사석등 通度寺石燈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통도사	고려	경남유형문화재 제70호

연번	석 등 명	소 재 지	시 대	비 고
41	해인사석등 海印寺石燈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32-13, 해인사	통일신라	경남유형문화재 제255호
42	관음사석등 觀音寺石燈	경남 창녕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11-14, 관음사	미상	경남문화재자료 제22호
43	경주교동석등 慶州校洞石燈	경북 경주시 교촌안길 15-3	통일신라	경북문화재자료 제10호
44	축서사석등 鷲棲寺石燈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축서사	고려	경북문화재자료 제158호
45	구례윤문효공묘전석등 求禮尹文孝公墓前石燈	전남 구례군 산동면 둔사길 36-13	조선	전남유형문화재 제37호
46	함평용천사석등 咸平龍泉寺石燈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209, 용천사	조선 (1685)	전남유형문화재 제84호
47	화엄사구층암석등 華嚴寺九層庵石燈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2	통일신라	전남유형문화재 제132호
48	천관사석등 天冠寺石燈	전남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1272-473, 천관사	통일신라	전남유형문화재 제134호
49	장명석등 長明石燈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고려	전남문화재자료 제7호
50	독상리석등 獨上里石燈	전남 화순군 동북면 석등길 1	미상	전남문화재자료 제62호
51	동사리석등 東舍里石燈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95	고려	전남문화재자료 제95호
52	신안흑산진리 무심사지 석등 新安黑山鎭里 无心寺址 石燈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고려	전남문화재자료 제193호
53	장흥탑산사지석등 長興塔山寺址石燈	전남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문화길, 탑산사지	고려	전남문화재자료 제196호
54	재궁리석등 齋宮里石燈	전북 김제시 월촌동 재궁길 63-16	조선	전북유형문화재 제78호
55	미륵사지석등하대석 彌勒寺址石燈下臺石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미륵사지	백제	전북문화재자료 제143호
56	성주사지석등 聖住寺址石燈	충남 보령시 성주면 먹방계곡길, 성주사지	통일신라	충남유형문화재 제33호
57	보덕사석등 報德寺石燈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보덕사	조선	충남문화재자료 제183호
58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石燈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 리사지길 300, 미륵대원지	고려	충북유형문화재 제19호
59	충주 미륵대원지 사각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四角石燈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 리사지길 300, 미륵대원지	고려	충북유형문화재 제315호

부록 2. 북한 석등 목록

연번	석 등 명	소 재 지	시 대	비 고
1	금장암지 석등 金藏庵址 石燈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금장골	신라말~고려초	
2	정양사 석등 正陽寺 石燈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정양사	고려 태조년간	
3	정연사 석등 正演寺 石燈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정연사	고려	
4	묘길상마애불 앞 석등 妙吉祥磨崖佛 앞 石燈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고려	
5	봉선사지 석등 奉先寺址 石燈	강원도 철원군 봉상리	신라말~고려초	
6	철원 풍천원 석등 鐵原 楓川原 石燈	강원도 철원군 고궐리	신라말~고려초	
8	개국사지 석등 開國寺址 石燈	원) 개성직할시 개성시 덕암리 개국사 현) 개성직할시 개성시 방직동	고려 (1018)	
9	만월대 석등 滿月臺 石燈	현) 개성직할시 개성시 방직동	고려	
7	자혜사 석등 慈惠寺 石燈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자혜사	고려	
10	현화사 석등 玄化寺石燈	원) 황해도 개풍군 현화사 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020)	

부록 3. 석등 관련 금석문

석 등 명	개선사지석등(開仙寺址石燈)
소 재 지	전남 담양군 남면 개선동길
건립연대	868년(경문왕8년, 앞면) 891년(진성왕5년, 뒷면)
지정사항	보물 제111호
명 문	景文大王主」 文懿皇后主大娘主願燈立」 炷唐咸通九年戊子中春夕」 繼月光前國子監卿沙千金」 中庸送上油糧業租三百碩」 僧靈□ 建立石燈」 龍紀三年辛亥十月 日僧入雲京租」 一百碩烏乎比所里公書俊休二人」 常買其分石保坪大業渚沓四結五畦東令行土北同土南池宅土」 西川奧沓十結八畦東令行土西北同土南池宅土」 土南池宅土」

석 등 명	나주서문석등(羅州西門石燈)
소 재 지	전남 나주군 나주읍 금성동 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연대	1093년(선종10년)
지정사항	보물 제364호
명 문	南瞻部洲高麗國羅州 中興里□長羅在□應 □□□□光□□□□ 聖壽天長百穀豐登 錦呂安泰富貴恒存 願以燈龕一座石造排立 三世諸佛聖永獻供養 大安九年癸酉七月日謹記

석 등 명	무진명석등(戊辰銘石燈)
소 재 지	광주읍성 대항사지 현) 광주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건립연대	고려
지정사항	광주 유형문화재 제5호
명 문	聖壽天長□戊辰□五 穀豐登□□□民安 六趣迷倫三塗滯□□ 刹之願燈龕一座令者 棟樑乘善消皆□修□□ 再後證菩提之□□□ 菩薩戒 右弟子

석 등 명	법천사목우암석등(法泉寺牧牛庵石燈)
소 재 지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956번지
건립연대	1681년(숙종7년)
지정사항	비지정
명 문	施主 太叩 信浩 片手 金千立 別座 摠悟 徐弘發 化主 呂閑 呂字門 僧類造成 康熙 二十辛酉四月日

석 등 명	용천사강희명석등(龍泉寺康熙銘石燈)
소 재 지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209, 용천사
건립연대	1685년(숙종11년)
지정사항	전남 유형문화재 제84호
명 문	康熙二十四年乙丑六月 日 方丈寶玄 三月□勝申 □□ □□天惠 供養施主秩 布□之生末將□施主 □□奇洞 豈春 李先□ 崔龍伊 厚上 金生角 金愛立 緣化 曹己生 金平立 □□ 金惡金 性□ 李古云 別坐 一玉 □酒 泊寶 李下伊供養主省圭 處迪 李莫□ 熙悅 勝河 李□□ 智官 高洪丕 季芳 三玄 石手 金罔全 徐三運 世口 李奉伊 三石 德輝 □ 田 尙龍 守丕 熟石化主巨源 鐵物化主惠英



2013年度彙報



특별전시

□ 민속복식 제32회 특별전

- 주 제 :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 출토유물
- 기 간 : 2013. 05. 03 ~ 05. 31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4전시실
- 내 용 : 2003년 충청남도 연기군에서 출토된 청주 한씨 송재 문정공파 후손 한준민 (1570~1638)과 부인 여흥 민씨, 며느리 평양 조씨 등 일가의 유물 70여점을 전시하였다. 조선시대 솜옷의 재봉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귀중한 유물들로 평가된다.
- 도 록 :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출토 유물』, 민속원, 42,000원, 267쪽.
- 후 원 : (주)두성종이, (사)누비문화연구원, 한국출토복식연구회



특별전 포스터



특별전 개막식 1



특별전 개막식 2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 출토 유물』 도록 표지

□ 고고미술 제4회 특별전

- 주 제 : 연민 이가원 선생이 만난 선비들
- 기 간 : 2013. 09. 13 ~ 11. 12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전시실
- 내 용 : 연민 이가원 선생이 단국대학교에 기증한 유물 가운데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과 학문세계는 물론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유물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특히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가장본 등 희귀 고서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의 편지와 글씨, 그림, 인장 등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주제별로 전시하였다.

○ 도 록 : 『연민 이가원 선생이 만난 선비들』, Epic/신양사, 비매품, 208쪽.

○ 후 원 : 경기도, 용인시



특별전 포스터1



특별전 포스터 2



특별전 개막식 1



특별전 개막식 2



특별전 모습 1



특별전 모습 2



『연민 이가원 선생이 만난 선비들』 도록 표지

□ 민속복식 제31회 학술발표회

- 주 제 :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묘 출토유물
- 일 시 : 2013. 05. 03.(금) 13:00 ~ 17:00
- 장 소 :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
- 내 용
 - 가. 청주한씨 준민 일가묘 출토 유물 고찰 - 이명은(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나. 조선시대 능참봉 연구 - 정해득(한신대학교)
 - 다. 여흥민씨 묘 출토 면화 특성 연구 - 채정민(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유효선(서울대학교)
 - 라. ‘누비’관련 명칭의 국어사적 고찰 - 박부자(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마. 한준민 일가 묘 출토 누비옷의 구성법 연구 - 유선희
(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 정기연구발표지 : 『韓國服飾』 제31호, 신양사, 276쪽.



□ 고고미술 제28회 정기연구발표회

- 주 제 : 廣明의 韓國 石燈
- 일 시 : 2013. 05. 10. (금) 14:00 ~ 17:00
- 장 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멀티강의실

○ 내 용

- 가. 한국의 석등 –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나. 삼국과 통일신라의 석등 – 정명호(덕남문화유산연구원)
- 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석등 – 최인선(국립순천대학교)



□ 고고미술 특별전 학술강연회

- 주 제 : 연민 이가원 선생의 생애와 학문
- 일 시 : 2013. 9. 13. (금) 15:00 ~ 18:00
- 장 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컨벤션홀
- 내 용
 - 가. 연민 이가원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 허경진(연세대학교)
 - 나. 연민문고 소장 고서의 학술적 가치 – 정재철(단국대학교)
 - 다. 연민 이가원 선생 기증 서화와 인장의 현황 – 오호석(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해외유적조사

□ 2013년도 제1차 중국 유적조사

- 일 시 : 2013. 04. 25. ~ 04. 30.
- 지 역 : 중국 요녕성 - 하북성 - 북경 일대
- 인 원 : 박물관 관계자 및 후원회원 등 8명



요녕성 蓋州市 石棚山 고인돌



요녕성 蓋州市 折木城 고인돌



요녕성 海城市 折木鎮 金塔



하북성 秦皇島市 萬里長城 山海關



북경 中國國家博物館



북경 盧溝橋

□ 일본 신라관계 유적 조사

- 일 시 : 2013. 07. 12. ~ 07. 16.
- 지 역 : 일본 大阪, 福井縣, 奈良縣 일대
- 인 원 : 박물관 관계자 및 후원회원 등 4명



栢原市立歴史資料館 전경



栢原市立歴史資料館 철불 조사



栢原市立歴史資料館 소장 철조여래좌상



栢原市立歴史資料館 소장 鐵佛頭



福井縣 敦賀市 常宮神社(연지사증 소장)



福井縣 南条郡 南越前町 新羅神社



福井縣 小浜市 佛國寺 조사 및 면담



福井縣 小浜市 正法寺 소장 반가사유상



大阪市 正祐寺 소장 신라법종



奈良 葛城市 當麻寺 전경



奈良 葛城市 當麻寺 寶物館



奈良 葛城市 當麻寺 寶物館內 철조여래좌상

□ 2013년도 제2차 중국 유적조사

- 일 시 : 2013. 08. 14. ~ 08. 21.
- 지 역 : 중국 요녕성-내몽고자치주-길림성 일대
- 인 원 : 박물관 관계자 및 후원회원 등 8명



요녕성 阜新市 서영자고성지



요녕성 阜新市 홍모자성지



내몽고자치구 敖漢旗 오한기박물관



내몽고자치구 開魯縣 불탑



길림성 吉林市 용담산성



요녕성 鐵嶺市 철령박물관

수 상

□ 정정완 한복상 수상

- 일 시 : 2013. 04. 26.
- 장 소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내 용 : 대한민국 초대 참선장을 지낸 정정완(1913~2007) 선생을 기념하는 제4회 정정완 한복상을 수상
- 주 관 : 정정완 기념사업회, 한국복식학회



수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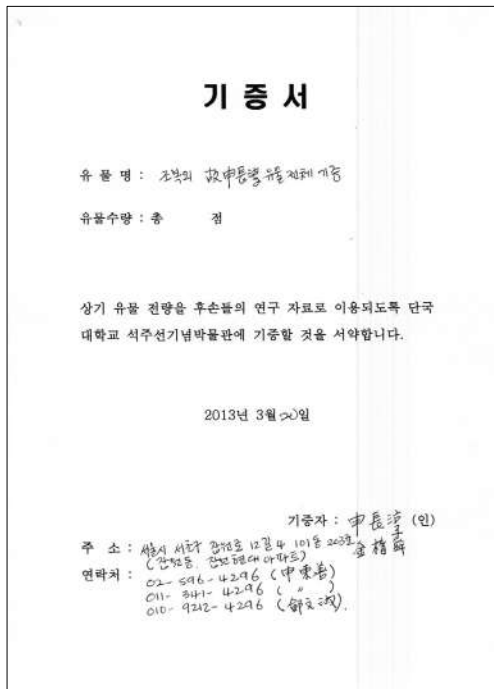


정정완 한복상

유물기증

□ 평산신씨 신광복(申光復) 일가 유물 기증

- 일 시 : 2013. 03. ~ 2013. 04.(3회)
- 기증자 : 신장순, 김계순
- 내 용 : 복식, 전적, 간찰 등 유물 848점



기증서



기증유물(복식류)



기증유물(전적류)

□ 전세유물 기증

- 일 시 : 2013. 04. 04.
- 기증자 : 이천애 여사
- 내 용 : 1940년대~1970년대 복식유물 63점



기증 전 유물 상태

기 증 서

유 물 명 : 복식유물 63점

유물수량 : 총 63 점

상기 유물 전량을 후손들의 연구 자료로 이용
되도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4월 4일

기 증 자 : 이 천 애 (인)

주 소 : 충청도 석주선 기념관 3층 303호 (1944. 10. 25)
연락처 : 010-83041-0461 / 01-1301

기증서

복식자료 기증 확인서

이 천 애 귀하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는 이천애 여사님의
복식자료 63점을 기증받고 기증 확인서를 드립니다.

○ 기 증 자 : 이천애
○ 기 증 일 : 2013. 4. 4.
○ 복식착용자 : 이천애 (41년 전) 어머니 씨
○ 기증수량 : 63점

2013. 9. 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 장 정 영

기증 확인서

□ 한준민 일가묘 출토 유물 기증

- 일 시 : 2013. 05.
- 기증자 : 청주한씨 송재 문정공파 문중
- 내 용 : 한준민 일가묘 출토 유물 74점



송재 문정공파 문중 대표와의 면담



단령



저고리



치마



기증 유물의 복원(저고리, 치마)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투고 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 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파일 형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투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연구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의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 8005-2389~2390

Fax. 031) 8021-7157

<http://museum.dankook.ac.kr>

〈박물관기요〉 28

2013년 10월 24일 인쇄

2013년 10월 31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년 2월 27일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52

(031) 8005-2389~2390, FAX : (031) 8021-7157

제작 신 양 사 (02) 2275-0834

